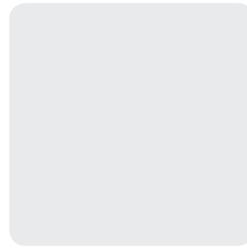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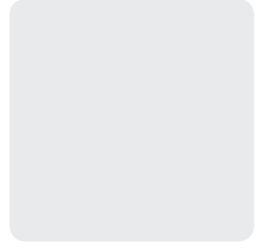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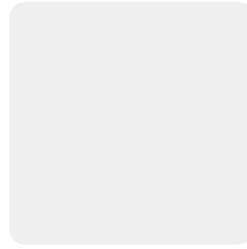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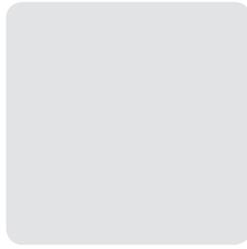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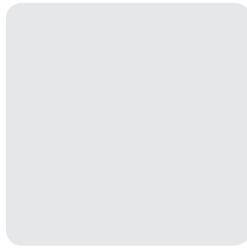


2018 - 1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차례

교과 스터디

국영수	2
오잉	4
海卿水伸(해경수신)	6
A+++	8
Chamistry	9
Organic Pharmsers	11
SY팀	13
공조	14
벤젠&부산물	18
약호정색	19
유기 에이플 가cha!	20
약학도	21
약학통계학	23
유기 요약단	24
의생화학	25
전공아작	26
정민이와 아이들	28
함께가요5학년	29
2018	30

비교과 스터디

CHA-IFRS	32
투스	33
토익보개조	36
Nursing Booster(NB)	37
로이스	40
분당서틀팀	41
원어민	42
Hershey	43

전공 튜터링

62스터디	46
-------------	----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단발트리오	50
국영수	58
류비윤비	59
정민이와아이들	60

리딩 리더스

책속에 헤이즐넛 62
 투김박 64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poah 66
 약통 68
 NSNT 69
 고구마 70
 늙어서 영어배우기 힘들조 71
 버티자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다. 72
 보1의4 73
 약자 74
 우리가 짱 75
 CHA 지니어스♥ 76
 푸드원탑 77

참여팀 명단 **교과 스터디**

	팀명	과목명	지도교수	학습구성원
1	오잉	생화학, 유기화학	강상진	서민숙
				석승민
				이예지
				이지원
2	국영수	분자생물학		진혜영
				정지원
				박운이
3	해경수신	기기분석	손우성	최신예
				임경진
				오해준
				임수환
4	CHAmistry	일반화학/일반생물학	송행석	김송현
				김유정
				박범철
				송정호
				신재엽
				안치훈
5	공조	미생물학II	박건영	진회영
				한희주
				이승연
				남지수
6	의생화학	생화학	최영석	김세희
				김예림
				김혜령
				정성욱
7	2018	바이오 캡스톤 디자인	정지형	황승범
				류원선
				박세정
				서지은
8	약학정색	기기분석	손우성	이영주
				이희다
				윤성우
				최동현
9	함께가요 5학년	병태생리학1	양영덕	김병진
				진주연
				김민지
				우나현
10	정민이와 아이들	세포생물학	송행석	박정민
				김유정
				김동길
				김민주

	팀명	과목명	지도교수	학습구성원
11	A+++	분자생물학		권민영
				박광모
				정태영
12	벤젠&부산물	의약품 제조화학2	김석호	이정인
				김소연
				조해람
13	SY팀	생화학		김수완
				지선영
14	유기요약단	유기약화학	김석호	신다영
				김성연
				김은혜
				김상욱
				배상희
				김선우
15	Organic Pharmers	약물치료학	심미경	유영운
				유현종
				박근영
				이소영
16	전공 아작내기	전공(간호학)		정원천
				최지인
				심효빈
17	약학통계학	약학통계학	손우성	박수연
				윤성원
				태소정
				이유진
				이영미
				정민영
				정건욱
최문혁				
18	유기 에이플 가 cha!	유기약화학	김석호	김선우
				박준석
				박희정
				정다섭
				정민영
19	약학도팀	약학개론	서영거	최문혁
				조영준
				김지수
				정진규
				안현빈
				홍혜린
김태환				
				손유나

참여팀 명단 **비교과 스터디**

	팀명	과목명	지도교수	학습구성원
1	CHA-IFRS	회계 원리	김태동	백종석
				정연호
				이강민
				손가영
				최세정
2	토익스터디	토익		임승연
				김지연
				김하정
				류수현
				남소윤
3	토익 보개조	토익		박수연
				이현영
				백혜원
4	김선경 교수님의 영어보충	영어(토익)	김선경	김정원
				윤지현
				심민주
				홍우정
				김지우
5	NB(Nursing Booster)	토익	박정민	김수현
				김태영
				정예진
				최은민
				최은정
6	원어민	OPIc IM1	Joshua	최현솔
				강예원
7	허쉬	토익	문지숙	류지연
				안혜진
				강주빈
8	로이스	토익	문지숙	고소연
				유원동
				이은주
9	분당서틀팀	토익		송다슬
				하유란
				김주희
				황지혜

참여팀 명단 전공 튜터링

	팀명	과목명	지도교수	학습구성원
1	62 study	유기약화학	김석호	이경록
				이상민
				정유정
				김나현
				김태환
				정다운

참여팀 명단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이름	학과
1	고지윤	보건복지행정학과
	김채연	보건복지행정학과
	서지은	바이오공학과
2	류원욱	보건복지행정학과
	이성희	보건복지행정학과
3	류혜연	의생명과학과
	윤지현	보건복지행정학과
4	진혜영	의생명과학과
	정지원	의생명과학과
	박운이	의생명과학과
5	박정민	의생명과학과
	김유정	의생명과학과
	김동길	의생명과학과
	김민주	의생명과학과

참여팀 명단 리딩 리더스

	팀명	팀원
1	투김박	김효빈
		박수린
		김재희
2	책속에 헤이즐넛	최성원
		진승빈
		박문희
		전일남
		이동진
		최주혁
3	포탈	류원욱
		이성희
		박혜원

참여팀 명단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순번	팀명	팀원	학과
1	우리가 짱	심*찬	스포츠의학과
		조*수	스포츠의학과
2	약자	조*람	약학과
		이*미	약학과
		김*진	약학과
3	버티자	권*연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한*경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4	약통	홍*기	약학과
		김*연	약학과
		정*은	약학과
		임*진	약학과
5	늘어서 영어 배우기 힘들조	김*형	의생명과학과
		김*훈	의생명과학과
		이*일	의생명과학과
		황*성	의생명과학과
6	고구마	김*갑	바이오공학과
		신*영	바이오공학과
7	Poah	김*완	데이터경영학과
		윤*진	데이터경영학과
		이*구	데이터경영학과
8	보1의4	한*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백*민	보건복지행정학과
		이*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전*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류*현	의료홍보미디어학과
9	nsnt	성*애	보건복지행정학과
		유*오	보건복지행정학과
10	차지니어스	황*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홍*예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서*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11	푸드원탑	서*주	식품생명공학과
		김*진	식품생명공학과

교과 스터디

국영수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분자생물학
- 학습장소: 학생회관, 카페엔젤 등
- 학습기간: 2018년 5월 11일 ~ 6월 12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11	11:30~13:30	학생회관	분자 생물학 11단원 - Transcriptional regulation process in Eukaryotes - Transcription factor 작용 메커니즘 - Transcriptional coactivators and corepressors
05.18	11:30~13:30	학생회관	분자 생물학 11단원 - Transcription in Eukaryotes - Post-transcriptional modification - Major type 4가지 - Minor type 2가지 - chromosome remodeling, modification complex
05.30	16:30~18:30	카페엔젤	분자 생물학 12단원 - Epigenetic mechanism - Gene expression regulation
06.01	11:30~13:30	학생회관	분자 생물학 13단원 - RNA processing - RNA editing - CRISPR/cas9
06.09	13:30~15:30	스터디 조원의 집	분자 생물학 13단원 - RNA processing 분자 생물학 16단원 - DNA typing
06.12	11:00~13:00	교내 강의실	분자 생물학 13단원 - RNA processing 분자 생물학 16단원 - DNA typing

활동소감

- **진혜영:** 처음으로 학습지원센터의 학습법 소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스터디의 효과가 더욱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스터디 없이 공부하던 세명의 조원들이 모여 진행한 것이라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결국 스터디를 통해서 얻어간 것이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터디라 하면은 각자 튜터링할 부분을 나누어 그 부분만 공부하고 본인이 담당하지 않은 부분의 공부는 잘 하지 않는 식인 경우가 많아서 선뜻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정한 목표 한가지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어떤 분량이든 모두가 모든 분량을 공부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만이 아닌 공부해야할 모든 내용을

함께 공부하거나 미리 공부해와서 토의하고 질문할 사항이 있는 것은 질문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스터디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발표도 함께 준비함으로써 더욱 알찬 스터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학습지원센터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이:** 많은 전공 과목들이 있지만 가장 공부하기 힘든 것은 분량이 많은 과목입니다. 어떤 전공이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 어렵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되면 분량이 많은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학기 초 책 한권을 다 나가실 것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공부할 양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스터디를 진행하면 할수록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선 스터디 자체가 매일 수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조원들이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들은 수업을 그날에 정리함으로써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았고 이렇게 스터디를 한 것들이 쌓이면서 시험공부도 중간고사보다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마지막 즈음에는 제가 가장 걱정했던 발표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이번의 경험을 살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스터디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지원:** 평소에 혼자 공부하던 것이 습관이던 저에게 스터디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고민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큰 그림을 잡고 시작하는 습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제가 공부하던 습관을 버려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가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은 자신만의 공부 방식을 버리고 모두에게 맞추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공부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또 다른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방식이었기에 지금까지 잘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굉장히 많은 진도를 나가는 전공 과목 특성상 한 순간이라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십상인데,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은 다른 조원이 또 다른 조원이 놓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해나가는 스터디였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스터디 기회를 가져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잉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유기화학
- 학습장소: 면학관 창업보육 카페, 학생식당 등
- 학습기간: 2018년 3월 28일 ~ 6월 16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0	18:00~21:00	면학관 창업보육 카페	맥머리 유기화학 1장 구조와 결합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04.18	18:00~22:00	학생식당	맥머리 유기화학 3장 유기화합물 : 알케인과 입체화학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레닌저 생화학 chapter1 생화학의 기반 chapter2 물, chapter6 효소 문제풀이 및 해설
04.19	19:00~21:00	학생식당	레닌저 생화학 chapter3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문제풀이 및 해설
04.20	22:00~23:00	미래관 2층	맥머리 유기화학 4장 유기 화합물: 사이클로 알케인과 입체화학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05.15	18:00~20:00	학생식당	레닌저 생화학 chapter7 탄수화물과 당생물학 문제풀이 및 해설
05.29	18:00~20:00	학생식당	레닌저 생화학 chapter11생체막과 수송, chapter13 생체에너지학과 대사 문제풀이 및 해설
06.05	18:00~20:00	학생식당	레닌저 생화학 chapter 14 당분해, 포도당신생성 및 인산 오탄당, chapter15 대사조절의 원리 문제풀이 및 해설
06.07	22:00~23:00	학생식당	맥머리 유기화학 6장 유기 반응의 개요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06.12	22:00~23:00	학생식당	레닌저 생화학 chapter16 시트르산회로 chapter19 산화인산화 문제풀이 및 해설
06.16	22:00~24:00	학생식당, 미래관 1층	맥머리 유기화학 제7장 알켄: 구조와 반응 제8장 알켄: 반응 및 합성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활동소감

- 서민숙: 2학년이 되고 전공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면서 나 혼자 공부하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학습지원센터의 교과 스터디에 지원하게 되었다. 4학점이라는 큰 학점의 생화학과 3학점 유기화학 공부를 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성적이라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쉬웠던 점은 항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미루다가 시험이 닥쳐서야 조원들과 급하게 매일 밤에 만나면서 공부를 했던 것이다. 다음 학기에도 분자 생물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
- 석승민: 평소에 생명과학은 자신이 있었는데 화학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워하던 과목이어서 힘들었는데 유기화학 공부를 같이 해서 교수님께는 물어보기 애매했던 사소한 질문들까지 물어보고 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생화학 공부를 같이 하면서 조원들이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기도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항상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도 문제를 바꿔 풀다보면 내가 놓쳤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도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

- **이예지:** 1학년때는 항상 시험기간이 닥치면 그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렀으며 전공공부라 혼자하면 어렵고 힘들었을법했는데 친구들이랑 서로 문제도 바꿔 풀어가며, 모르는 것도 질문하면서 더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기회가 된다면 다음학기에도 또 스터디를 해서 점점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 **이지원:** 생화학 양이 너무 많아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조원들이랑 해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억지로라도 했는데 이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정말 포기할 뻔 했다. 시험을 잘 보고 못보고와는 상관없이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다음에 이 친구들과 또 스터디를 할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는 더 열심히 참여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싶다.



海卿水伸(해경수신)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학술대회 준비
- 학습장소: 과학관 102호
- 학습기간: 2018년 03월 28일 ~ 06월 06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8	12:25~13:30/ 16:25~18:00	과학관 102호	조원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프로젝트 진행 배경 및 목적에 대해 구체화 → 2. 프로젝트 주제 선정>
03.29	12:25~13:30/ 16:25~18:00	과학관 102호	조원들끼리 모여 전날 정한 프로젝트 주제를 바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프로젝트 제안서 초안 작성>
04.16	12:25~13:30/ 16:25~18:00	과학관 102호	현장 조사 및 시장 조사를 통해 이 프로젝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높을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좀 더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시장 현황 조사 및 시장 조사 완료>
05.03	12:25~13:30/ 16:25~18:00	과학관 102호	제품 디자인 및 어떤 기술을 접목시킬지를 모여서 의논하고 이를 기획하였다. <제품 디자인 구체화 및 접목 기술 논의 및 최종 디자인 완료>
05.30	12:25~13:30/ 16:25~18:00	과학관 102호	제품 디자인을 완료한 뒤, 이를 경쟁력 재고를 위해 SWOT 분석 기법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좀 더 보완해나가하고자 하였다. <SWOT 분석 기법을 통해 경쟁력 재고를 하였고, 좀 더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나갔다.>
06.06	12:25~15:30	과학관 102호	최종 피피티 및 제안서 작성함으로써 교내 창업 경진대회 및 교과목 프로젝트 발표 준비하였다. <최종 피피티 + 정책 제안서 + 학술 포스터 작성 완료>

활동소감

- **약학과 15 최신예:** 창업은 무조건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기기분석 과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에도 과연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뜻 맞는 조원들과 함께 모여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의지를 비추고 난 뒤, 이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제로 학습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습 소모임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소모임을 진행함으로써 좀 더 의지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단순히 과제 프로젝트로 끝내기에는 뭔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창업 경진대회 등에 지원함으로써 여러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학습 소모임을 통해 조원들끼리도 더더욱 돈독 해지고, 보고서도 작성해감으로써 우리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및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엄청 뜻 깊었던 경험인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만, 교내 창업 대회 뿐만 아니라 과목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사회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약학과 15 임경진:** 혼자 했다면 엄두도 낼 수 없었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좋은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캡 스톤디자인, 창업대회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여태껏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3D 프린팅, 사업제안서 작성 등 많은 것을 해보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믿고,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내 온 만큼 앞으로도 더욱 기기를 발전시켜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약학과 15 오해준:** 교내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팀원들과 역할 분담이 잘 되어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3D프린터도 처음 사용해 보았고,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된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과 스테디를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했던 것도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약학과 15 임수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과 스테디를 진행하면서 구성원 개개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문서정리, 발표, 보고서작성 등)를 담당하여 역할분담을 통해 진행하다보니 매우 매끄럽게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듣기만 했었던 3D프린팅에서 부터 사업제안서 작성까지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통해서 손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다음번에도 적극적으로 교과 스테디에 참여하여 만족 할 만한 성과를 얻어 내고 싶습니다.



A+++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분자생물학
- 학습장소: 교내
- 학습기간: 2018년 6월 4일 ~ 6월 16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04	11시~13시	교내	Knockout mouse 만드는 법과 예시
06.07	11시~13시	교내	transgenic animal과 그에 따른 cloning의 예시
06.08	11시~13시	교내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PTM)
06.13	13시~15시	교내	논문 읽고 Journal club
06.15	11시~13시	교내	Telomere maintenance
06.16	18시~21시	교내	The Cancer Genome Atlas 논문을 읽고 돌아가면서 발표

활동소감

- 권민영: 이번에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였고, 서로 맡은 바 정보를 잘 찾아와 좋은 스터디 그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nockout mouse 에 대한 것은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였던지라 스터디를 통해 공부를 하여 비교적 쉽게 맞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Journal Club이라고 대학원이상에서 각자 돌아가며 논문을 읽는 것을 해보았는데,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 얻는 것이 훨씬 많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 박광모: 이번에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논문 읽기 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논문을 읽어보기도 했고, 요즘 뜨고 있는 NGS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텔로미어와 암기전에는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정태영: 이번 스터디를 통하여 Getically modified organism 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웠으며 그 중 특히 Knockoutmice 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Knockoutmouse 말고도 knockin, knockdown 등 knockmouse를 기반으로 한 여러 실험방법이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을 읽으면서 생물에 대한 상식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종합의견 스터디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으며, 수업 및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러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Journal club을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논문을 읽은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Chemistry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 학습장소: 과학관 220, 분임토의실
- 학습기간: 2018년 4월 3일 ~ 6월 21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3	19:00~21:00	과학관 220	화학 공부방식 정리, 스터디 규칙 정리
04.04	19:00~21:00	과학관 220	생물 5단원 원서 단어 시험, 파트별 예습한 부분 설명, 스터디 규칙 정하기
04.10	19:00~21:00	과학관 220	일반생물학 1차 퀴즈 준비, 파트별로 써온 예상문제 답안 공유
04.11	19:00~21:00	과학관 220	일반생물학 퀴즈 예상답안 쓰고 외우고 준비
04.17	19:00~21:00	과학관 220	화학 5단원 설명(튜터: 김송현)
04.18	19:30~21:30	과학관 220	화학 6단원 설명(튜터: 신재엽)
04.24	19:30~21:00	분임토의실	화학 중간고사 예상문제 정리
04.25	19:00~21:00	분임토의실	일반화학 예상문제 만들고 공유하기
04.26	19:00~익일6:30	분임토의실	일반화학 예상답안 수정하고 최종본 암기
05.09	19:00~21:00	과학관 220	생물 9,10단원 말은 파트별로 준비, 공부해온 것 설명
05.15	19:00~21:00	과학관 220	생물 6단원 복습, 10단원 예습 말은 파트별 설명
05.21	16:00~18:00	분임토의실	화학스터디 7단원 (튜터:박범철)
05.28	18:00~20:00	분임토의실	생물 7단원 복습, 11단원 예습
05.29	20:30~22:30	과학관 220	화학스터디 7단원 보충 (튜터: 치훈, 유정)
05.30	19:00~21:00	과학관 220	생물 8단원 복습, 12단원 예습
06.04	19:00~21:00	분임토의실	생물 쪽지시험(TCA, CALVIN Cycle), 6,7,8단원 퀴즈 예상문제 파트별로 답안쓰고 공유하기
06.05	19:00~21:00	과학관 220	화학 8단원 정리(튜터: 회영, 재엽), 9단원 정리(송현, 범철)
06.11	19:00~21:00	분임토의실	화학 10단원정리(튜터:송현, 유정, 범철), 11단원(회영, 재엽, 치훈 생물 예상문제(9~12단원)-예습 시 말은 부분에 대한 예상문제 한 소단원에서 1~2문제씩 만들어오기
06.12	19:00~21:00	과학관 220	화학 기말고사 예상문제 만들고 공유하기
06.13	14:00~19:00	학관	화학 예상문제 답안쓰고, 공유하며 수정한 후 최종 답안 외우기
06.17	16:00~19:00	해룡 휴게실	창의컴퓨팅 실기 엑셀(컴활2급)시험 기출문제로 대비
06.18	16:00~20:00	해룡 휴게실	일반생물학 필기시험 예상문제와 답안 준비 및 암기

활동소감

대학에 막 들어온 1학년과 처음 이 학교에 온 편입생으로 구성된 저희 팀은 처음에 전공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서로 되어있는 전공서적과 심화된 내용의 강의를 어떻게 공부해야하나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터디만의 규칙을 정하고, 공부방식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전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부분을 공부해온 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때보다 책임감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 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지를 공유하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스터디 계획으로 공부를 더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스터디 소모임 활동을 통해 저희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대비를 할 때 만든 예상문제가 적중하여 예상답안을 미리 준비한 저희는 당황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때에는 이론 전공 두 과목 말고도 실기과목인 일반생물학실험과 교양인 창의컴퓨팅을 같이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스터디라는 그룹에 소속되어있어 서로 가진 전공에 대한 지식과 시험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다같이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터디 지원금으로 팀원들끼리 저녁과 간식거리도 먹으면서 친목을 다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 학기동안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6명이다보니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웠고, 쉬는 날이나 못하는 날을 다른 요일로 대체해야 하기도 했고, 공부방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중간에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고민하고 방식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 모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가며 스터디 활동에 진지하게 임했기 때문에 한 학기동안 잘 활동하고 별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룹 활동이었고 서툰 점도 있었지만,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이 저희에게 단순히 '공부'를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능력들을 갖추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팀원들을 만나 끝까지 즐겁게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다음 학기 때에는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잘했던 점을 강화시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스터디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Organic Pharmers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약물치료학
- 학습장소: 과학관 104호, 미래관 분임토의실 502호
- 학습기간: 2018년 4월 3일 ~ 6월 13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3	16:30~18:30	과학관 104호	약물치료학 수업 시간에 배운 약어 및 병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혈액 검사를 포함한 일반화학검사의 정상 범위 퀴즈.
04.12	15:00~17:00	미래관 분임 토의실 502호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장애, 소화성궤양, 위식도역류질환, 정맥혈전색전증의 특징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학습.
04.18	16:50~18:30	미래관 분임 토의실 502호	중간고사 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스터디활동이었기 때문에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질병들을 나눠서 공부해와 예상되는 기출문제를 서로 나눠서 설명하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학습
06.04	16:50~18:30	과학관 104호	간염, 갑상선질환, 천식 치료약물 선택 시 보다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효과는 증가하고 부작용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토론
06.09	14:00~17:00	과학관 104호	결핵, COPD, 간경화에 대한 내용 공부와 각자 맡은 주제 당 2-3개의 문제를 만들어 공유하고 풀어보며 토론
06.13	14:00~17:00	과학관 104호	염증성 장질환(IBD)과 간염에 대한 내용 공부와 각자 맡은 주제 당 2-3개의 문제를 만들고 답을 추측. 또한 마지막 스터디인 만큼 기말고사 대비 시험범위의 모든 주제 핵심을 공부하고 토론.

활동소감

- 박근영: 새로운 과목을 모여서 공부하니까 혼자서 공부 할 때 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한 학기 동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유현중: 약학대학 입학 후 매 학기 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작년 2학기 때 신청을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올해 스터디에서도 이전처럼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며, 학습 지원센터의 지원 속에 동기들과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매번 감사함을 느끼며 다음 학기에도 여건이 된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 이소영: 이번 학기 역시 교과 스터디활동을 참여한 것 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스터디과목을 새로 정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적응해나가고 새로운 스터디방법을 찾으면서 그 과정에서 역시 배울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원천: 한 학기동안 여러 친구들과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갖고 스터디시간에 먹을 간식이나 스터디가 늦게 끝나는 경우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최지인: 여태까지 그래왔듯 스터디 덕분에 한학기가 재미있었습니다. 계속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Y팀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생화학
- 학습장소: 면학관 205호,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5월 3일 ~ 6월 18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3	3:30~4:50	면학관 205호	Isomer에서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입체 이성질체에 대해 구분하고 L form과 D form에 대해서 복습하였다. 또 열역학 제 2법칙에서 엔트로피와 엔탈피 상관관계를 학습하였고 이를 깁스 자유에너지에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을 열역학적 관점에서 공부하였다.
05.22	3:30~4:50	면학관 205호	단백질의 합성과정과 DNA전사 RNA폴리메라이즈에 대해서 공부하고 복습하였음.
06.07	3:30~4:50	카페	단백질의 기본적인 아미노산과 1차 2차 3차 4차 구조를 구분하고 더 자세하게 공부하며 단백질의 접힘 과정에 대해서 학습한 것을 복습함.
06.12	3:30~4:50	카페	신호전달 6가지와 유종 모자이크에 대해 다시 복습함. 신호전달 1. GPCR 2.RTK 3. RGC 4.이온채널 5.인테그린 6.뉴클리어 수용체
06.14	3:30~4:50	카페	세포질 내에 있는 내제막 단백질에 대해 공부하여 보았으며,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에 대해서 복습하였다.
06.18	3:30~4:50	카페	지질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 1. 저장 지질-트라이아실글리세롤 2. 막지질-인지질, 당지질, 고세균 에터 지질 그리고 저장 지질, 막지질 이외의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공부해보았다.(비타민, 신호전달)

활동소감

- **지선영:**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전공공부를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었다. 서로 모르는 부분을 설명하고 수업 자료인 ppt를 보면서 동기에게 설명을 하여 내가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내가 설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공 시간에 더 집중하여 수업을 듣게 되었고 복습도 미리미리 하는 등 공부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스터디 덕분에 전공에서 가장 어려운 생화학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스터디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도 잘 나오게 된 것 같다.
- **김수완:** 하르부터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해서 평소 전공수업을 듣고 난 후 몰랐던 부분이나 헷갈렸던 부분들을 말로 정리할 수 있었고 때문에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처음엔 두 명에서 하는 스터디라 제대로 스터디가 진행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교과 스터디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다 보니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던 것 같다. 학과 성적은 물론이고 영어 성적 또한 올라 많은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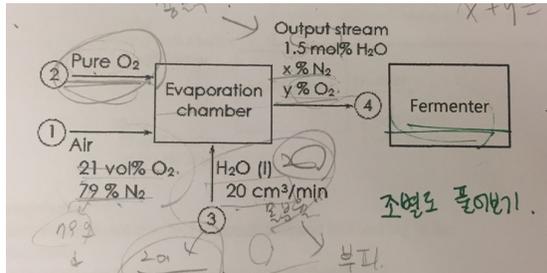
공조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식품공학
- 학습장소: 카페엔젤, 면학관 기능성 테크샵 등
- 학습기간: 2018년 3월 12일 ~ 6월 21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8	1시 20분 ~ 3시 20분	교내 (카페엔젤)	식품공학 복습 및 문제풀이 후 토의 해당 단원 문제들을 각자 풀고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토의
04.10	3시 20분 ~ 5시 20분	면학관 기능성 테크샵	식품 가공학 복습 및 질문 해당 단원을 각자 공부 후, 이해 안 가는 부분 토의 단원별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체크
05.22	9시 20분 ~ 4시 20분	면학관 창업보육센터	식품공학 복습 및 문제풀이 후 토의 3단원 유체파트 복습과 시험문제 풀이 및 토의
06.07	1시 ~ 3시 30분	면학관 창업보육센터	식품공학 복습 및 시험 준비 4단원(열전달) 교과서와 프린트 공부 및 토의
06.08	1시 ~ 3시 30분	면학관 창업보육센터	식품가공학 1 수업 복습 및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06.11	12시 30분 ~ 1시 30분	면학관 창업보육센터	식품미생물학2 기말 준비를 위한 미생물학 내용 정리

활동소감

- i) 목표로 했던 과목 [공학]과 [가공학]을 중심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였다.
 교과 스터디를 통해 [공학]에서 배운 내용.
- 공학을 배우는 이유 : 측정(measuring)과 예측(prediction)을 위함
 - 식품가공의 단위공정에 포함된 공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들의 중요성과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숙지.
 -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의 이해, 유체의 흐름, 열전달 및 물질전달에 대하여 배움.
 - 2학년 물리화학 때 배운 물질의 상태(고체, 기체, 액체)와 식품의 3요소(생물학적, 심리적, 기호적)와 관련하여 식품가공기술의 기본 개념이 공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배우고 공학 공부를 위해 필요한 개념을 배움.
 - 각 단원별 문제를 풀고 이를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하는 방법을 배움.
 -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는 학교 도서관의 식품공학 책을 참고하여 풀이를 참고.
 - 대학원생 선배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 후 조원들과 토의를 통해 문제를 품.



우선 내가 말하는 방법으로 풀이하고 그래도 안되면 해답을 보내줄게

교수님 수업 들었으면 input = output 으로

되풀이했지?

11 박민선씨

여기서 시작해봐

내 일간 다시풀이해볼게요

Excel spreadsheet showing data tables and a linear regression graph.

Table 1. The vote given on the question

t	a	b	c	평균	표준편차	
6	0	950	900	990	973.3333	20.81666
7	10	1800	1700	1600	1700	100
8	30	4200	4000	3900	4033.333	152.7525
9	40	6500	6000	6200	6233.333	251.6611

Table 2. Log N value for a, b, c

log N	a	b	c	평균
13	2.977724	2.991226	2.995635	2.98262
14	3.255273	3.230449	3.20412	3.230449
15	3.623249	3.60206	3.591065	3.605664
16	3.812913	3.778151	3.792392	3.79472

Table 3. The value of a, b, c for t(time)

t	a	(first ex b (second c (third) 평균	표준편차			
19	0	2.977724	2.991226	2.995635	2.98262	1.318411
20	10	3.255273	3.230449	3.20412	3.230449	2
21	30	3.623249	3.60206	3.591065	3.605664	2.183988
22	40	3.812913	3.778151	3.792392	3.79472	2.400816

Graph: log N (N) vs t. Regression line: $y = 5E-06x^3 - 0.0004x^2 + 0.0274x + 2.5883$

[예제 1-2-4] 비정상상태

용량 10l 인 교반탱크에 100 g/l 농도의 소금용액이 들어 있다. 만약 순수한 물이 유량 12l/h 로 연속적으로 탱크에 공급되고, 동일 유량의 용액을 유출시켜 탱크 내의 용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때 90 분 후의 소금용액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풀이]

이 문제는 탱크 내의 소금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는 비정상 상태이므로 물질수지식에 축적항이 포함된다. 탱크 내의 소금농도를 x, 시간을 t 라 나타내면 시간에 따른 탱크내 소금농도의 변화는 dx/dt (g salt/l·min) 이다. 이 미분항에 용액의 부피를 곱한 $V(dx/dt)$ (g salt/min) 은 소금의 축적량이다. 공급되는 물에는 소금이 없으므로 소금의 공급량은 0 이다.

유출액(overflow)의 유량은 공급액과 같고, 유출액의 소금농도는 충분히 교반시키므로 탱크 내의 농도와 같다. 그러므로 소금의 유출량은 공급 속도(F)에 용기 내의 농도를 곱하면 된다. 물질수지식은 다음과 같다.

$$0 = Fx + V \left(\frac{dx}{dt} \right)$$

$$\frac{dx}{dt} = -\frac{F}{V}x$$

음(-)의 부호는 x의 시간에 따른 감소율을 나타낸다. 변수분리를 하고 적분하면,

$$\frac{dx}{x} = -\frac{F}{V} dt$$

$$\ln x = -\frac{F}{V}t + C$$

t = 0 에서 x = 100 을 대입하면 적분상수 C = ln(100) 을 얻는다. 따라서

$$\ln \left(\frac{x}{100} \right) = -\left(\frac{F}{V} \right)t$$

F = 12l/h = 0.2l/min, V = 10l
 t = 90 을 대입하면

$$\ln \left(\frac{x}{100} \right) = -\left(\frac{0.2}{10} \right)(90)$$

$$x = 100(e^{-1.8}) = 16.53 \text{ g/l}$$

여러분스 제가 문결 들고와줬어야

1b 김선유언너

저기 A,B 가 인분 총하고 아웃분 총으로 방정식 풀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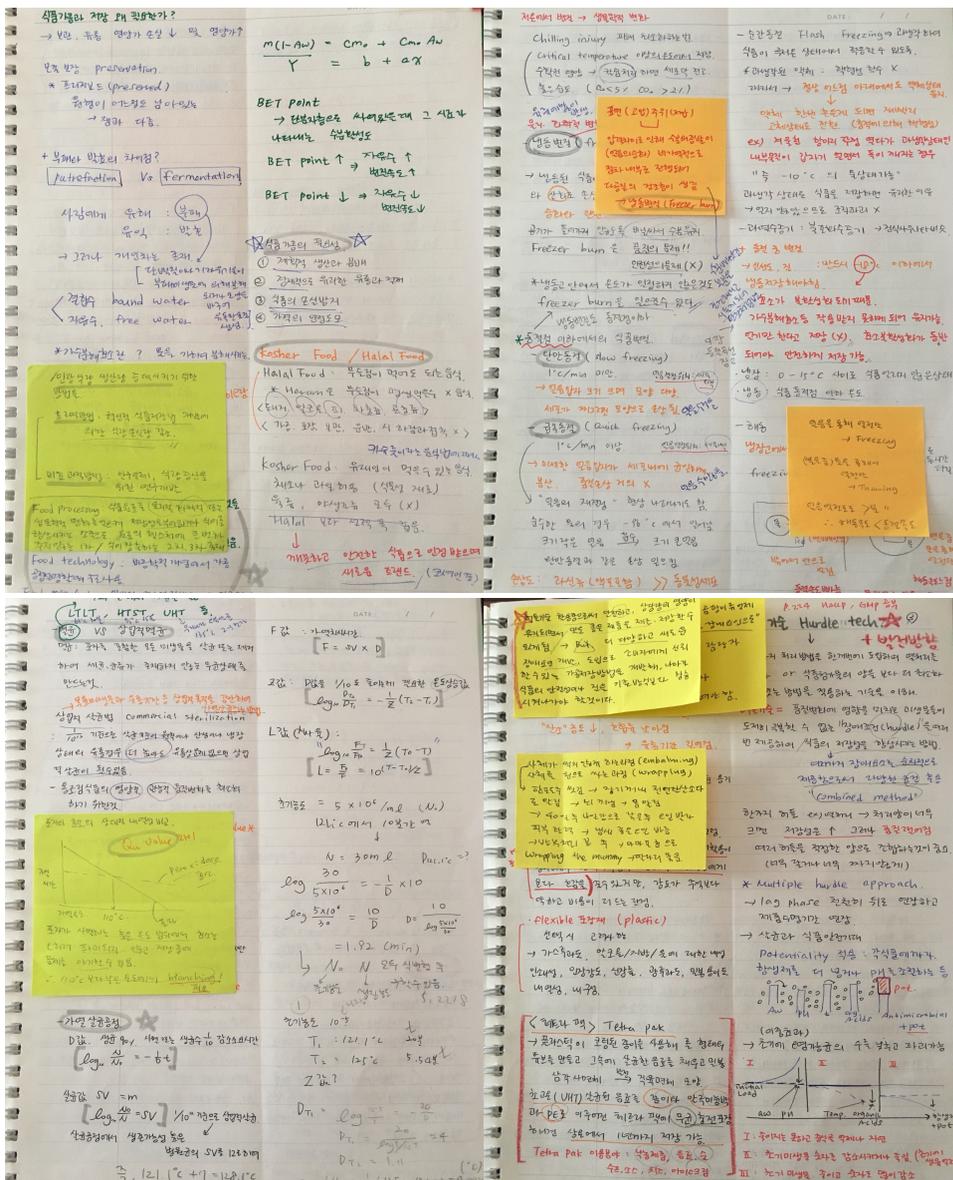
아니 A는 air로 두고 B는 총 아웃분 그래야 인분에서 pure O2를 1/5로 미지수 둘수있으니깐!

문제 주어진대로 멍하게 풀라고 저렇게 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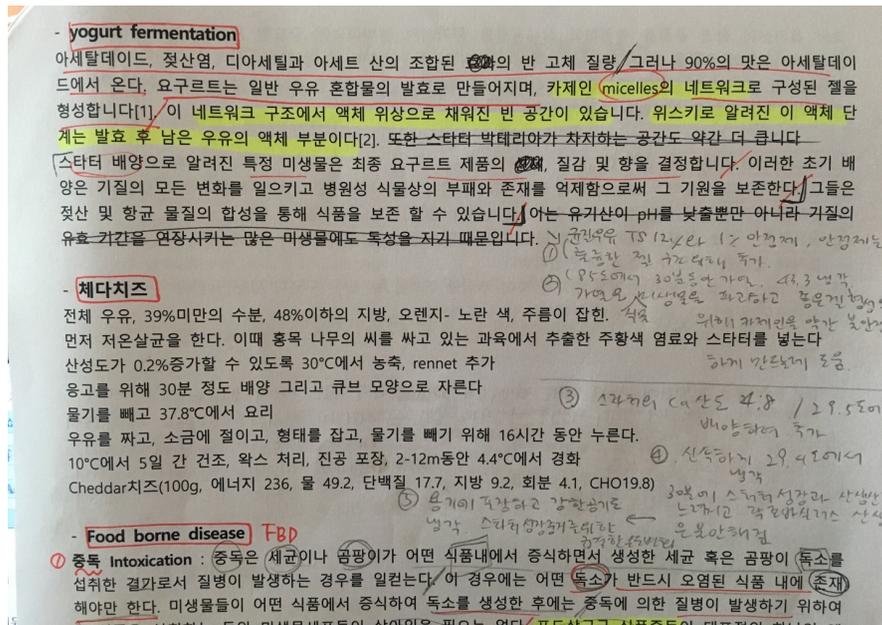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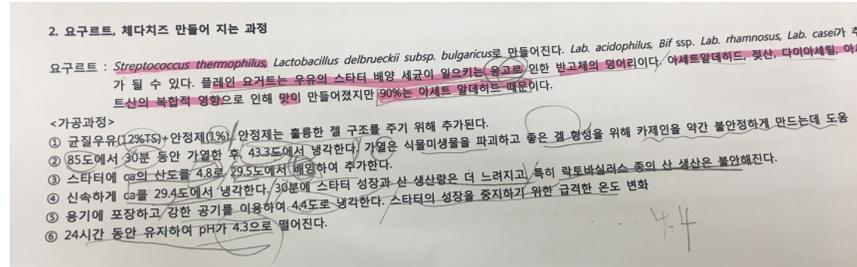
교과 스테디를 통해 [식품가공학]에서 배운 내용.

- Food processing, technology, manufacturing에 대한 개념을 배움.
- Kosher, Halal Food 등 식품 가공에 있어서 최근 대두 되는 이슈를 파악.

- Chilling injury 및 Freezer burn 등 식품의 변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움.
 - 식품 가공에 있어서 중요한 "건조의 3단계"에 대해 배우고 동결건조기의 장점과 식품 가공에 있어서 중요성을 배움.
 - 살균 및 멸균에 대해 배우고 상업적 살균이 무엇인지 살균공정에 필요한 수학적 계산 등을 배우고 직접 계산을 해봄.
 - 첨가물, 보존제, 표백제, 살균제 등에 대해 배움.
 - "테트라 팩" "통조림 캔" 등 식품의 포장재를 배우고 포장을 하는 이유와 장점을 배움.
 - 여러 가지 처리방법을 통해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허들기술과 HACCP에 대해 배움.
 - 요즘 이슈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와 각종 최신 가공기술(초음파, 초미계유체, 초고압)에 대해 배움.
- 이러한 내용들을 조원들이 각자 전공책을 미리 읽어온 후 각자 노트 정리 한 것을 공유하고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식품 가공에 대해 토론을 함.



- ii)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는 [식품미생물] 등 다른 과목도 함께 공부함.
- 미생물의 경우 범위가 넓고 내용이 많아서 각자 정리한 후 내용을 비교하고 서로 모르는 내용 등을 토의하고 알려주는 식으로 시험대비.



+같은 yogurt Fermentation이지만 각자 다르게 정리를 하여서 공유를 하고 토의를 하였다

- iii) 교과 스터디의 효과와 조원들과 내가 느낀 점
- 이번 교과 스터디를 통해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학점을 받고 등수를 매기는 시스템에서 어쩌면 조원들과 경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잘하면 다른 조원도 잘하고 다른 조원들이 잘하는 과목을 내가 배울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며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특히 [공학]같은 경우 시험도 Group Test가 있어서 다른 조들에 비해 우리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자주 만났기 때문에 [공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벤젠&부산물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의약품 합성학, 의약품 제조화학
- 학습장소: 과학관 103호, 학우의 집
- 학습기간: 2018년 4월 4일 ~ 6월 14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4	16:00~18:00	과학관 103호	의약품 합성학 17, 18단원 정리
04.23	18:00~21:00	학우의 집	의약품 제조화학2 중간고사 대비
05.09	16:00~18:00	과학관 103호	의약품 합성학 25, 26단원 복습
05.18	13:00~15:00	과학관 103호	의약품 합성학 27단원 복습
06.01	14:00~16:00	과학관 102호	의약품 합성학 28, 29단원 복습
06.14	16:00~18:00	과학관 102호	의약품 합성학 30, 31, 32단원 복습

활동소감

우리는 의약품 제조화학의 쪽지시험과 중간·기말고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조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가져와 서로에게 설명하고 질문하고 각자의 자료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스터디의 첫 번째 좋았던 점은 먼저 공부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점이다. 사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에 비해 자취나 통학을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공부를 시작하는 일'이다. 기숙사에 살면 도서관에 가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지내다 보면 그런 일이 적고, 마음가짐이 안일해지기 쉽다. 우리 스터디원은 모두 통학생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공부하자! 모이자!' 하며 격려하고 과제를 부여(학습 내용을 정리해 오는 일)함으로써 의무감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좋았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성적 상승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학기, 의약품 제조화학 1 강의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던 우리 그룹은 원점수 측면에서도, 상대적인 백분위에서도 성적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악흐정색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기기분석
- 학습장소: 미래관
- 학습기간: 2018년 3월 29일 ~ 5월 24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9	18:30-21:00	미래관	매주 기기분석 수업이 끝난 후 모여 그날의 내용을 복습 및 서로에게 피드백한다.
04.05	18:30-21:00	미래관	매주 기기분석 수업이 끝난 후 모여 그날의 내용을 복습 및 서로에게 피드백한다.
04.12	18:30-21:00	미래관	매주 기기분석 수업이 끝난 후 모여 그날의 내용을 복습 및 서로에게 피드백한다.
05.10	18:30-21:00	미래관	매주 기기분석 수업이 끝난 후 모여 그날의 내용을 복습 및 서로에게 피드백한다.
05.17	18:30-21:00	미래관	매주 기기분석 수업이 끝난 후 모여 그날의 내용을 복습 및 서로에게 피드백한다.
05.24	18:30-21:00	미래관	매주 기기분석 수업이 끝난 후 모여 그날의 내용을 복습 및 서로에게 피드백한다.

활동소감

한 학기 동안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느꼈다. 늘 혼자 공부해오고 혼자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과거와 달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뒤섞고 또 그것을 하나로 수렴해 나아가는 작업들의 순간순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내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닌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빈틈없이 채워나가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순간을 경험하였을 때, 혼자서는 절대로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결과물을 향해 같이 나아갔던 스터디원들의 소중함과 우리 스터디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와 같이 주어진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외우는 공부에 지난 나의 학업이 맞춰졌었다면, 이번 그룹 스터디라는 기회를 통해서 함께 협동하고 조율하며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생각하며 의견을 내는 과정을 갖게 되며 더욱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유기 에이플 가cha!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유기화학
- 학습장소: 과학관 105호
- 학습기간: 2018년 4월 2일 ~ 6월 4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2	17:05-19:20	과학관 105호	카보닐 화합물의 개요 및 19장 알데히드와 케톤, 20장 카복실산과 나이트릴
04.09	19:00-21:00	과학관 105호	21장 카복실산 유도체, 22장 카보닐 알파-치환 반응, 23장 카보닐 축합반응
04.16	19:00-21:20	과학관 105호	24장 아민과 헤테로고리 화합물
05.14	19:00-21:00	과학관 105호	25장 생체분자:탄수화물
05.28	19:00-21:00	과학관 105호	26장 생체분자:아미노산,펩타이드 및 단백질, 27장 생체분자:지방질
06.02	19:00-21:00	과학관 105호	30장 케도함수와 유기화학:고리형 협동 반응

활동소감

한 학기 동안 교과 스터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습하면 공부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교과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은 다른 과목에 비해 유기약화학 과목의 경우에는 스터디 덕분에 복습을 했기 때문에 시험기간에 공부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둘째는 동기들과 서로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공부 방법은 아주 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을 대충 끼워 맞춰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친구들과 설명하면서 공부하니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이해해야 말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더 좋은 풀이를 공유할 수도 있었고, 서로 모르는 점이 보완되어서 상부상조하며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니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혼자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복습을 미루게 되기도 했는데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니 그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미리 스터디 준비도 더욱 철저하게 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여럿이 함께 하는 스터디 방법의 순기능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동기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해주신 학습지원처 및 학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학도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약학개론
- 학습장소: 과학관 105호
- 학습기간: 2018년 4월 18일 ~ 6월 19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8	15시 30분~18시 00분 (2시간 30분)	과학관 105호	약사직능의 심층적 고찰
06.08	15시 30분~18시 00분 (2시간 30분)	과학관 105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와 약학과의 연관성
06.11	15시 30분~18시 00분 (2시간 30분)	과학관 105호	제4차 산업시대와 변리사
06.14	15시 30분~18시 00분 (2시간 30분)	과학관 105호	미국약사의 직무와 약학과의 연관성
06.15	15시 30분~18시 00분 (2시간 30분)	과학관 105호	약국 약사에 대한 소개와 직무의 이해
06.19	15시 30분~18시 00분 (2시간 30분)	과학관 105호	약의 이해와 개발

활동소감

약사의 직능에 대한 학습과 고찰로 시작했던 약학개론 스터디가 약의 이해와 개발에 대한 학습과 고찰로 끝이 났다. 그 사이에 국과수 연구원, 변리사, 미국약사, 약국약사, 병원약사 등 약학과 관련된 많은 직업과 그 직능에 대해 공부하였지만 결론은 마지막 주제처럼, 약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약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약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직능을 펼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2개월간의 스터디를 통해 단순히 약학개론이라는 과목의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학도 팀원 모두가 약사가 어떤 것인지, 약학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약사가 되어야 할지와 같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물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낸 것 같아서 무척 뿌듯하다. 물론 조만간 나올 1학기 성적에서 약학개론 과목 성적이 높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단순히 지역 사회의 약사나 인터넷 또는 TV에서 본 약사의 여러 모습을 보고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정확히 모른 채 각자의 생각 속의 멋진 약사를 꿈꾸며 약학대학에 온 우리였다. 그렇기에 그 의미를 알려줄 약학개론 과목과 정확한 가치 판단을 위한 고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터디는 약학개론 시간에 수업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필기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문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다음 스터디 날에, 이전 스터디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한 학습과 고찰을 통해 나름의 결론이나 자신이 나아갈 방향,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고 노력해야 할 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깊고 폭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라면, 약대 신입생으로서의 생활이 행사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 초반에 꾸준히 모이지 못해 행사가 없는 후반부에 스터디를 많이 진행하게 된 점이다. 다음에 스터디를 진행한다면 1주가 아니라 2주에 한 번 모이더라도 꾸준히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겠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동기들이 하교를 하고 모두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스터디를 해야 했지만, 학습지원센터에서 스터디 지원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스터디 진행 후에 회식을 한다던지, 더운 날에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사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등의 보상(?)이 있었기에 의욕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노력해주고 지원해주는 학교와 학습지원센터에 감사하고 약학도 팀원 모두가 스터디에 성실히 참여해주고 내 의견을 잘 따라줘서 보람 있고 재밌는 스터디가 되었기에 이 보고서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약학통계학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약학 통계
- 학습장소: 교내 105호, 카페엔젤
- 학습기간: 2018년 월 일 ~ 월 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9	3시 30분 ~ 4시 30분	교내 105호	엑셀 데이터분석도구 이용하여 난수 생성 하기/튜터 시범 뒤 직접 실습
05.01	3시 30분 ~ 4시 30분	교내 105호	엑셀의 '함수'와 '데이터 분석 메뉴' 각각을 이용하여 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만들기.
05.14	3시 30분~ 4시 30분	교내 105호	약학 통계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같이 복습/배운 내용을 각자 정리해 와서 서로 질문하는 방식
05.17	3시 30분~ 4시 30분	교내 105호	약학 통계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같이 복습/배운 내용을 각자 정리해 와서 서로 질문하는 방식
05.23	2시 00분~ 3시 00분	과학관 카페	약학 통계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같이 복습/배운 내용을 각자 정리해 와서 서로 질문하는 방식
06.05일	2시 00분~ 3시 00분	과학관 105호 (교실)	약학 통계 기말과제에 대해서 논의/서로 준비하고 있는 약학 통계 기말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언해주기

활동소감

한 학기동안 스터디 모임을 통해 서로 각기 다른 분야를 공부하다가 온 학생들이 모여, 약학통계라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이해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자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관찰하는 대상으로서의 각종 다양한 현상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불확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정성을 규명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관심의 대상으로부터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척도를 배우고 이용하여, 측정이나 관찰 또는 범주화를 통해 자료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자료는 그 측정에서 사용된 척도의 종류에 따라 각종 적절한 수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학문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엑셀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서로 그 방법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공유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과 엑셀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약학에서 습득할 수많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유기 요약단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유기화학
- 학습장소: 과학관 105호
- 학습기간: 2018년 3월 27일 ~ 6월 18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30.	3:00~4:30	과학관 105호	중간고사 내용 복습 1
05.01.	3:00~4:30	과학관 105호	중간고사 내용 복습 2
05.04.	3:00~4:30	과학관 105호	중간고사 내용 복습 3
05.08.	3:00~4:30	과학관 105호	유기화학 맥머리 24장(기말고사 대비)
05.17.	3:00~4:30	과학관 105호	유기화학 맥머리 24장(기말고사 대비)
05.23.	3:00~4:30	과학관 105호	유기화학 맥머리 25장(기말고사 대비)
06.01.	3:00~4:30	과학관 105호	유기화학 맥머리 26장(기말고사 대비)
06.08.	3:00~4:30	과학관 105호	유기화학 맥머리 30장(기말고사 대비)
06.12.	3:00~4:30	과학관 105호	의약품합성학 1장(기말고사 대비)
06.18.	3:00~4:30	과학관 105호	의약품합성학 2장(기말고사 대비)

활동소감

스터디원들과 함께 여러 의약품 합성 과정들을 공부하며, 그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새롭게 배운 내용과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연결시켜가며 유기 합성에 대한 지식을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학기 막바지가 되니 스터디가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아쉬웠다. 복잡하다고만 생각했던 유기화학이 친근한 과목이 되었고 동기들과의 돈독한 우정도 생겼다.

메커니즘에 대해 같이 공부하니 기억에도 오래 남고 공부를 정말 즐겁게 했다. 다음 학기에도 동기들과 함께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생화학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생화학
- 학습장소: 학생식당
- 학습기간: 2018년 3월 3일 ~ 6월 22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4	오후 7시	학생식당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chapter 1.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발표하였다.
04.16	오후 7시	학생식당	Chapter 2.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발표하였다. 전 회차에서 부족한점과 고쳐야할 점을 얘기하였다.
04.23	오후 7시	학생식당	가장 중요한 chapter 3. protein에 대해 배웠고, 서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가장 잘된 스터디였다.
05.09	오후 7시	학생식당	Chapter 4. 이부분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물리를 잘하는 팀원에 의해 좋은 토의를 하였다.
05.16	오후 7시	학생식당	Chapter 5. 각자 찾아오기로 한 과제를 찾아오고, 재밌는 예시를들면서 공부하였다.
05.23	오후 7시	학생식당	Chapter 6. 효소에 대해 배우는데,protein에 지겨웠던 팀원들이 마지막으로 활기차게 공부했다.

활동소감

2학년 교과 과정 중 가장 어렵고 선배들에게 어렵다고 들었던,생화학을 스터디로 하였다.처음 목표는 생화학 강의 상위권을 노리고 하였으나, 상당한 내용의 양과 난이도로 진도를 따라가자 라는 목표를 다시 잡았다. 진행 방식은 서로 공부해와야 하는 부분을 공부해오고 서로 발표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각자 공부를 하고, 서로에게 가르쳐 주면서,팀원들을 믿고 생화학 진도를 배울 수 있었다.이 스터디를 통해 생화학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었고, 생화학의 점수를 평균이상을 받았다.김예림 팀원은 스터디 지원금을 통해 스터디가 끝나고 다같이 회식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소감을 남겼다. 김혜령 팀원은 생화학 스터디를 통해 혼자 따라가기 벅했던 생화학 진도와 공부를 따라갈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소감을 남겼다.정성욱 팀원은 김예림 팀원과 마찬가지로 스터디공부와 회식을 둘다 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라고 남겼다.황승범 팀원은 생화학 스터디라 무척이나 재미없을 줄 알았으나, 의외로 예시도 준비해오고 과제도 정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동기 였고,다들 돈이 없기도해서 지원금이 있어서 만족한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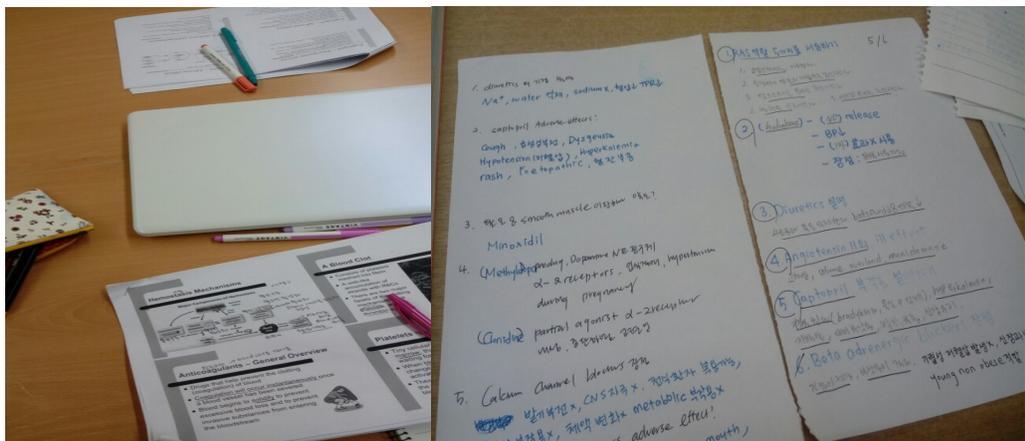
전공아작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실용영어, 기본간호학 등
- 학습장소: 교내
- 학습기간: 2018년 5월 3일 ~ 6월 15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3	3시간 30분	교내	영어실용영어 발표 준비 ppt 만들기 스크립트 만들기 호흡맞추고 연습해 보기
06.06	4시간	교내	열병요법 기본간호학 공부 관련 개념 숙지하고 암기하고 쪽지시험 퀴즈 요약 정리 서로에게 개념 내용 설명해주기
06.08	3시간	교내	약리학 저혈압 고혈압 관련 약물 지혈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고 암기 쪽지 시험 퀴즈 요약 정리 서로에게 개념 내용 설명해주기
06.11	2시간	교내	기본간호학 전공 공부 중 체위를 공부하여 실습시험과 기말고사를 대비한다. 정해진 범위 외에도 책과 인터넷을 참고하여 전공에 대한 지식의 범위를 넓힌다.
06.13	2시간 40분	교내	nanda 간호진단명을 공부하여 용어에 익숙해지고 실제로 책을 보지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간호진단명을 알고 있어서 실무적인 상황에서도 간호진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전공책을 사용하여 공부한다.
06.15	2시간	교내	영어 LC 기말고사 대비 doctor-patient의 script를 제작한다. 의료진과 환자사이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script에 반영한다. 영어로 번역하고 잘못된 번역이 없는지 확인한다. 외운 후 서로 맞춰본다.

활동소감

- 박수연: 스테디 하면 토익이나 텡스 등 영어나 자격증 등으로만 진행할 생각만 했었는데 전공공부를 스테디로 해보니 굉장히 유익하고 효과적이었다. 스테디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공부를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할 수 있었고 과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혼자가 아닌 함께 스테디를 진행하여 혼자였다면 알 수 없었던 정보들, 오개념들을 서로 확인해 줄 수 있어서 좋았다. 각종 퀴즈나 시험을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더욱더 스테디를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스테디를 통해 공부와 과제를 미리 해서 성적 향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영어 발표 때는 일주일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자신감있게 발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공과목을 스테디로 하면, 정해진 시험 범위 외에도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지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것 같다. 스테디 조원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중간에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를 배려하여 끝까지 스테디를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스테디를 하고 싶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들 이었다.
- 신효빈: 간호학과에서 2학년이 되면서 공부량과 암기해야 할 것이 1학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힘이 들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소모임을 잘 활용을 해서 학습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소모임의 장점 중 하나는 내가 의지가 약해질 때 나와 함께 공부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다시 내 의지를 다지고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다.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원원할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같다. 나도 좋고 친구한테도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다. 이번 학기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아직 성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모임에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번 학기 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학습 소모임과 같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들을 학교에서 제공했으면 좋겠다. 학습 소모임의 또 다른 장점은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혼자 혹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잠도 오고 눈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모임에서는 눈으로도 공부하고 입으로도 공부하고 손으로도 또 다양한 도구(단어게임, 등등)를 활용하여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더 집중을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민이와 아이들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세포 생물학
- 학습장소: 미래관 분임토의실, 미래관 강의실 등
- 학습기간: 2018년 3월 28일 ~ 5월 30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8	4시~6시	미래관 분임토의실	세포 생물학 1단원을 공부하며 동기들의 특징과 배분할 과목을 나눈후 서로 공부해와 질의응답을 가졌다
04.04	2시~4시	미래관 강의실	2단원보다 진도에 맞게 4단원을 먼저 공부했으며 동기들이 수업을 듣고 나도 가장 이해가 안된다 했던 단원 이었다. 유전자 복제에 있어 이해도가 떨어져 서로가 힘든 스터디 시간 이었다.
04.06	1시~3시	미래관 분임토의실	단백질에 관하여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복습하고 전기 영동이란 복잡한 부분에 대해 이해 하기에 도움이 되었다.
04.13	6시~9시	미래관 강의실	단백질 전사에 대하여 조원들과 토의 하면서 시험범위의 단원을 모두 정리하고 시험 출제 예상 문제를 풀었다. 시험 대비에 있어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05.15	4시~6시	미래관 분임토의실	핵공의 구조를 그저 상상으로만 하는 것 보다 조원들과 모여 한번 그려 보며 이해한 결과 모두 이해 할 수 있었고 그 핵공을 통한 물질의 이동 경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05.30	6시~9시	미래관 4층 테이블	cell skeleton의 구조와 기능을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근골세포의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의 기능을 알아본다.

활동소감

혼자 하는 공부 보다는 역시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모인 사람들이 모여 서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며 공부하는 방식이 머리에 잘 남고 시험 성적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모르는 부분은 서로 설명하며 어떤 방식으로 설명 했을 시 가장 이해도가 높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였다.



함께가요5학년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병태생리학
- 학습장소: 과학관 1층
- 학습기간: 2018년 3월 29일 ~ 6월 1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9	16:00~18:00	과학관 1층	Chapter 2. 스트레스와 독성 상해에 대한 세포반응: 적응, 손상, 사멸 진주연이 튜터를 맡아 강의식으로 진행하였다.
04.02	14:30~17:00	과학관 1층	Chapter 3. 염증과 수복 우나현이 출제자를 맡아 퀴즈식으로 진행하였다.
04.19	16:00~18:00	과학관 1층	Chapter 4. 혈류역학적 장애, 혈전질환과 쇼크 김민지가 튜터 및 출제자를 맡아 강의식과 퀴즈식으로 진행하였다.
05.16	16:00~18:00	과학관 1층	Chapter 6. 면역계통의 질환 진주연이 튜터를 맡아 강의식으로 진행하였다.
05.23	15:30~17:30	과학관 1층	Chapter 7. 신생물 (전반부) 우나현이 튜터를 맡아 강의식으로 진행하였다.
06.01	16:00~18:00	과학관 1층	Chapter 7. 신생물 (후반부) 김민지가 튜터를 맡아 강의식으로 진행하였다.

활동소감

이번 스터디의 목표는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병태생리학 1> 과목을 시험기간 전에 미리 공부하고 그 진행 과정을 서로 확인함으로써 성적 상승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스터디원 모두 지난 학기에 비해 성적이 일부 상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스터디 범위는 스터디를 진행한 주에 해당하는 수업 진도에 맞게 설정하였다. 수업을 들은 지 오래된 내용이 아닌 그 주에 배운 내용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6회에 걸친 스터디 모두 뒤쳐지는 사람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스터디 방식은 한 사람이 튜터가 되어 미리 공부해 온 스터디 범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준 후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이해하는 강의식과, 한 사람이 출제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푼 후 출제자의 의도를 듣고 관련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퀴즈식으로 진행하였다. 스터디 초반에는 양이 많지 않고 비교적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퀴즈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았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단원의 양이 많아지고 내용이 어려워져 퀴즈식보다는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우리 스터디에는 강의식이 더 맞는 것 같다.

스터디를 하면서 거의 매주 스터디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혼자 공부할 때보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도 스터디를 할 계획이다.

18000 병태생리학 정리

Chapter 7. Neoplasia_2

8. The Molecular Genetics of Cancer (암의 분자유전학)

- Cancer cell **acquire mutations** in genes that control cell growth, differentiation, and apoptosis, or that maintain genomic integrity. Similar mutations may also be present in the **germ line** of persons with hereditary cancer predispositions.
 - Somatic mutation: 저염색체 이상유전, 암의 유전자 변화
 - Germline mutation: 저염색체 이상유전, 암세포 유전자 변화
- Mutation 원인
 - Environmental: chemical, radiation, ROS
 - Spontaneous error in DNA replication and repair
- Cellular and molecular hallmarks of cancer: 8 fundamental changes
 - Self-sufficiency in growth signals**(자율성 신호 전달)
 - 종양 억제 유전자: 종양억제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여 종양 억제 가능
 - **oncogene** (종양유전자): **proto-oncogene**(원형 종양유전자) → **activated oncogene**(활성화된 종양유전자) → **transforming growth factor**(종양변환 인자) → **cancer** 유발
 - **oncogene**: positive effector, 세포의 자율적인 성장 촉진
 - **proto-oncogene**: 잠재적 종양유전자
 - **Tumor suppressor gene**(종양억제유전자)
 - negative effector, 세포의 비자율적 증식 억제
 - **Mutator gene**(돌연변이유발유전자): DNA mismatch repair gene
 - 종양 억제 유전자: 종양억제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여 종양 억제 가능
 - Insensitivity to growth-inhibitory signals**(성장억제 신호에 대한 무감응)
 - 종양 억제 유전자: 종양억제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여 종양 억제 가능
 - Angiogenesis**(혈관형성)(세포외 세포생성)
 - 종양 성장 촉진
 - Unlimited replicative potential**(무제한 분열 능력)
 - telomerase activity
 - Sustained angiogenesis**(지속적인 혈관형성)
 - 종양 성장 촉진
 - Ability to invade the local microenvironment**(국소 환경 침투 능력)
 - 암 전이

8.1 Self-Sufficiency in Growth Signals: Oncogenes

- Cancer cells: 4-7 mutated genes or more-mutated genes over years
- The normal genes that are mutated in various cancers, include cell cycle regulators, signal transduction factors, transcription factors, DNA-binding proteins, growth factor receptors, adhesion molecules, effectors of apoptosis and telomerase.
- Transforming genes(종양유전자) → cancer 유발
 - **oncogene**: positive effector, 세포의 자율적인 성장 촉진
 - **proto-oncogene**: 잠재적 종양유전자
 - **Tumor suppressor gene**(종양억제유전자)
 - negative effector, 세포의 비자율적 증식 억제
 - **Mutator gene**(돌연변이유발유전자): DNA mismatch repair gene

출처: Campbell, Reece, Biologie, 11e, © 2011 Sinauer Associates, Inc. and W. H. Freeman & Co.

스터디 결과물

2018 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바이오 캡스톤 디자인
- 학습장소: 면학관 215, 면학관 205 등
- 학습기간: 2018년 3월 26일 ~ 6월 22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3	12:00~14:00	면학관 215호	기존 연구에서 얻어낸 지식 및 내용을 토론 후 연구주제 확립
05.04	16:00~18:00	면학관 205호	클로닝을 위한 프라이머 제작
05.13	14:00~18:00	교내	각 Sample의 cDNA간의 alignment 구하기
05.25	12:30~14:30	면학관 205호	cDNA sequence에 해당하는 프라이머 제작과 제한효소 정리
05.04	16:00~18:00	면학관 205호	클로닝을 위한 프라이머 제작
06.22	12:00~15:30	면학관 215호	Transfection 수업 참관 및 토론

활동소감

이번 학기에 바이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수강하면서 팀원들과 교과 스터디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바이오 캡스톤 디자인 수업(학생 연구)의 특성상 팀원들끼리 회의하고 토론하는 일이 잦아 교과 스터디와 함께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다음 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교과 스터디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먼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아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학기 안에 모든 실험들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탐모를 큰 주제로 잡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 연구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하다 보니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가능성이 있는 지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 다행히도 담당 교수님과 멘토의 도움으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주제 선정 후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아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었다.

교과 스터디를 통해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또한 들어볼 수 있어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그리고 서로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공유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모르는 것이 생기는 서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아직 수강하지 않은 과목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 매 스터디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여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스터디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복습을 하는 효과도 있고,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에도 편리해 도움이 되었다. 아직 학생연구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4학년 2학기에 들어가다 보니 진학과 취업 준비로 바빠 이번 학기로 연구를 마치고 다음 학년이 이 주제를 이어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결과를 낸 것이 없어 조금 아쉽지만, 후배들에게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교과 스테디

CHA-IFRS 비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회계
- 학습장소: 미래관 209호
- 학습기간: 2018년 4월 3일 ~ 6월 5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3	17:00~19:00	미래관209호	개념복습 및 분개,전기 연습
04.10	17:00~19:00	미래관209호	분개, 전기 관련 문제 풀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연습
04.17	17:00~19:00	미래관209호	문제 풀이 및 모의고사 1회 풀이및 전체적인 복습
04.24	17:00~19:00	미래관209호	모의고사 2회 풀이및 전체적인 복습
05.15	17:00~19:00	미래관414호	모의고사 3회 풀이및 교수님 모의고사 풀이 강의 시청
06.03	17:00~19:00	미래관209호	시험 끝난 후 결과 확인 모임

활동소감

첫 스터디의 결과로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다. 비록 명단에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분들도 모두 합격한 것을 보면 교수님을 비롯해 스터디원 각자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끝을 낸 지금 첫날이 기억난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스터디, 두근두근 강의실에 앉았던 우리 친구들.. 인원이 빠지면서 급히 서류 변경도 했었고 학교 행사로 인해 많이 빠져 진도도 늦었던 아이들부터 합격 못하면 어찌지 걱정하던 그때가 벌써 2달이 지났다.

스터디 장으로서 시험을 보지 못해 합격 조희도 할 수 없어 부끄럽지만 친구들의 미소를 보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첫 손가락에 배부르지 않듯 이것을 기회로 다음 스터디 때는 더 열심히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다음 스터디 때 더 많은 친구들 그리고 원래 있던 친구들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셨던 김태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토스 비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교내 강의실 등
- 학습기간: 2018년 6월 4일 ~ 6월 16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6.04	2:30~4:30	교내	토익 교재 unit 3 명사 파트에 대한 내용부터 스터디하기로 정했다. 스터디 날짜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강의 내용을 복습하여 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오기로 했다. 공부한 내용은 명사의 역할, 명사앞에 오는 품사,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별, 복합명사 등 이었다. 스터디 당일에는 공통적으로 많이 틀렸던 문제를 확인하고, 서로 모르는 문제나 개념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TS 공식 종합서를 사용했으며, 이에나 교수님의 강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06.06	2:10~3:20	홍대 설빙	토익 시험에서 평균 1회 이상 꾸준히 출제되는 대명사에 대한 내용으로 스터디를 하였다. 쉬는 날에 하는 공부라 근처 빙수전문점에서 만나서 공부했다. 일단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스터디를 하였다.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을 암기하여 테스트를 하였고, 틀린 문제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06.09	1:30~4:20	교내 강의실	토익영어 문법 중 형용사의 역할, 수량 형용사,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형용사 관용표현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목표이다.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적 토익형태를 바탕으로 진행하였고 스스로 ETS TOEIC Test 공식종합서 RC Unit5에 있는 문제풀이, 오답노트작성, 단어 암기를 하고 서로 질문하거나 문제를 만들어서 맞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스터디 결과 팀원들은 형용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다.
06.11	15:30~16:30	교외 식당	문법의 품사 중 부사에서 부사의 역할과 위치, 빈도 부사, 부정 부사, 수 수식 부사, 강조 부사, 시간 부사와 접속 부사, 주의해야 할 부사, 기타 빈출 부사 중 선수학습이 되어 있는 것 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사들은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암기하고 틀리면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다시 한 번 머릿속에 각성시키도록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고 채점한 후 틀린 것에 대해서는 오답노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06.13	1:00~2:20	교내 강의실	우선 각자 ETS TOEIC Test 공식종합서 RC에 전치사 파트를 풀어왔다. 그다음 모여서 채점을 하고 풀면서 헷갈렸거나 모르는 문제를 서로 질문하고 가르쳐 주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도 외워서 문제를 내어 시험도 봤다.
06.17	13:00~14:00	교내 강의실	토익 리딩 파트 중 동사part를 공부했다. 동사 내에서도 수일치, 태, 시제 이 세 가지 unit을 따로 다른 날에 하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했다. 각자 이 부분에 대해 책으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왔고, 스터디 하는 시간에는 서로 몰랐던 문제와 의문이 들었던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가르쳐 주었다. 암기가 필요한 가산/불가산 명사는 빈출되었던 단어들에 한해 각자 외우고 서로 구두시험을 시행하였다.

활동소감

- 남소윤: 다 같이 함께 스터디를 하니깐 동기 유발도 되고 더 의욕적으로 공부하게 되어서 좋았다. 친구들이랑 공부한다고 대충하지 않고 혼자 공부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들도 더 파고들어 꼼꼼히 공부하게 된다. 기본개념도 제대로 잡고 심화개념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함께 해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느낀다.
- 박수연: 토익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혼자였으면 이루지 못했을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혼자였으면 미루거나 대충 넘어갈 부분도 스터디때 서로 들린 문제를 알려주고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고 꼼꼼히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 토익이라는 시험자체가 딱딱하고 형식적이어서 혼자 공부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스터디 조원들과 모여서 공부하니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다. 또 스터디가 끝난 후 카페나 간식을 사와 나눠 먹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즐거웠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지연: 스터디를 하면서 몰랐던 내용을 서로 공유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공부하고 서로 알려주어서 어려웠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평소라면 귀찮아서 대충 넘어갔을 문법도 조원들과 함께 스터디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게 되었다. 특히 처음으로 보는 토익 시험에서도 목표치였던 70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스터디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기회가 된다면 어려운 전공 수업도 스터디를 통해 좋은 성적을 받아보고 싶다.
- 류수현: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같은 수준의 친구들에게 설명을 듣고 복습하는 것이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았다. 이번 학기에 정규 토익 700점이 넘는 것이 목표였는데, 스터디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토익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쉽게 지나쳤던 부분들을 친구들이 잡아주고 서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이 토익 점수 상승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다음에도 스터디 활동을 통해 토익 점수가 더 상승했으면 좋겠다.
- 김하정: 한 번도 공부를 같이 해 본적 없는 나에게는 같이 공부하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한 챕터를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의 깊이가 더 넓은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좋다고 생각했다. 또한 모르는 문제는 협동해서 푸니 이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협력과 지식이 필요로 되었는데 초반에는 미숙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발전되는 모습에 뿌듯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 이현영:내가 생각하는 스터디의 장점은 같은 또래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항상 어떤 압박이나 강요 속에서 공부해오던 것과 달리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공부량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며 자발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모습이 좋았다. 특히 모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어떠한 풀이방식 바탕이 아닌 서로서로의 눈높이로 설명을 해주니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고 내가 다른친구를 설명해주며 부족했던 것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엇보다 스터디를 통해 서로 목표로 하던 토익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점을 매우 칭찬한다.



토익보개조 비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학생회관
- 학습기간: 2018년 3월 26일 ~ 6월 22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8	16:00-18:00	학생회관	단어시험 Day1 test 후, 문법 '관계대명사' 설명.
04.04	16:00-18:00	학생회관	단어시험 Day2 test 후, 문법 '수동태' 설명.
04.11	16:00-18:00	학생회관	단어시험 Day3 test 후, 문법 '가정법' 설명.
05.02	16:00-18:00	학생회관	단어시험 Day4 test 후, 문법 '수일치' 설명.
05.09	16:00-18:00	학생회관	단어시험 Day5 test 후, 문법 'it-that용법' 설명.
05.23	16:00-18:00	학생회관	단어시험 Day6 test 후, 문법 '조동사' 설명.

활동소감

전세계 공인인증성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토익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것을 목표로 동기들과 함께 약 4개월간 총6회 하루에 2시간씩 토익스터디를 하였다. 우리 조는 ETS TOEIC Test 공식실전서 RC&LC 책을 가지고 문법과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일주일에 단어 50개씩 각자 외워 서로 단어퀴즈를 통해 어휘테스트를 하였다.

그 후, 문법 취약파트를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일주일 동안 각자 풀어난 문제 중에 틀린 문제를 공유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각자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며,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취약파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파트를 동기들에게 설명해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욱더 동기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며 스터디 진행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너무나 좋았다.

4학년 마지막 스터디였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스터디였다.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또 할 것이며 후배들도 무조건 참여하였으면 한다.



Nursing Booster(NB) 비교과 스토디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미래관 502, 현암기념관 403 등
- 학습기간: 2018년 3월 27일 ~ 5월 30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7	4:30~5:50	미래관 502호	1) Listening 듣고 받아쓰고 오답토의하기 2) 해커스 토익 LISTENING 3) 듀터: LISTENING 강예원
04.03	4:30~6:10	현암기념관 403호	1) Listening 듣고 받아쓰고 오답토의하기, 단어시험보기, Reading 듀터가 문법 설명하고 문제 풀고 오답하기 2) 해커스 토익 LISTENING , 해커스 토익 READING 3) 듀터: LISTENING 최은정/ READING 최은민
04.04	6:30~8:30	미래관 504호	1) Listening 듣고 받아쓰기 오답토의하기, 단어시험보기, Reading 듀터가 문법 설명하고 문제 풀고 오답하기, Reading 과제 채점과 오답 2) 해커스 토익 LISTENING , 해커스 토익 READING 3) 듀터: LISTENING 최현솔/ READING 강예원
04.11	4:30~5:00	미래관 504호	1) Listening 듣고 받아쓰기 오답토의하기, 단어시험보기, Reading 과제 채점과 오답 2) 해커스 토익 LISTENING , 해커스 토익 READING 3) 듀터: LISTENING 강예원/ READING 정예진
05.01	4:30~6:30	미래관 502호	1) Listening 듣고 받아쓰기 오답토의하기, 구문 과제 오답토의하기 2) 해커스 토익 LISTENING , 세상의 모든 구문 3) 듀터: LISTENING 정예진/ 구문 정예진
05.09	4:30~6:10	과학관 강의실	1) Reading 과제 오답토의하기, 구문 분석했던 것 오답토의하기 2) 해커스 토익 READING , 세상의 모든 구문 3) 듀터: READING 최현솔/ 구문 정예진
05.30	4:30~6:10	학생회관	1) Listening 단어를 외우고 서로 질문하여 맞추기 2) 파고다 영어 LC 3) 듀터: 파고다 영어 LC 최은정, 정예진

활동소감

1. 활동소감

- **강예원:** 한학기가 거의 다 지나고 드디어 토익 스터디가 끝났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영어에 자신이 없었고 실제로 영어를 잘 못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영어에 대해 거부감 같은 느낌을 항상 갖고 살아왔다. 수능 때도 역시 영어에 자신이 없었고 시험을 잘 본 편도 아니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가졌다. 대학교에서는 간호학과 특별반 이라는 강의가 개설 되었고 나는 그 강의를 수강했다. 이예나 교수님께서 수업 보충을 위한 스터디를 여셨지만 나는 다른 교양을 들어야 해서 시간이 겹쳐 스터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스터디를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끼리 모여 다른 스터디가 만들어졌다. 나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다. 한 학기동안의 우리의 스터디는 유익했다. 우리는 스터디 모임에서 lc와 rc 책을 사서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 이예나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단어도 공부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조원들과도 많이 친해졌다. 스터디모임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열심히 참여했고 서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2학기에도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참여 할 것이다.
- **최은정:** 처음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을 계획할 때, 영어를 잘하는 언니들과 함께 영어 스터디를 하게 되면 나의 실력이 많이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서 스터디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처음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교재를 구입하고 어떻게 교재를 풀지 정했다. 하지만 처음 모였을 때 계획을 조금씩 변경했다. 어떤 교재를 어디까지 풀 건지, 속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단어는 어떻게 외울 것인지를 정했다. 두 번째 스터디 모임에서 우리는 진짜로 교재를 풀면서 토익영어 공부를 했다. 혼자 공부했으면 몰라도 그냥 넘어갔을 단어나, 듣기 문제를 언니들 덕분에 한 번 더 보고 들을 수 있었고 영어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스터디 모임을 통해 영어 실력이 완전 상위로 오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통해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고 스터디가 끝난 후 에도 터득한 방법으로 꾸준히 영어공부를 지속할 예정이다.
- **최은민:** 처음에는 이예나 교수님의 스터디에 시간상 참여하기 어려워서 스터디모임을 새로 하나 만들어 토익공부를 하고자 모였던 모임이었다. 매주 매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과 사이가 더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같이 열심히 문제를 풀고 같이 고민하며 해결해나가면서 뿌듯하기도 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비록 스터디모임을 자주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시간을 내고 배려하며 공부하는 스터디모임을 통해 조금이나마 실력이 향상된 느낌은 든다. 다음 기회에 또 스터디 모임을 하게 된다면 그때에도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참여할 것이다.
- **최현솔:** 처음에는 단순히 토익 성적을 올리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된 스터디였다. 하지만 한 학기동안의 토익 스터디 모임은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조원들과의 소중한 추억, 마냥 어렵게 느껴졌던 토익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 및 자신감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토익에 있어서는 조원들과의 토익 관련 문제 풀이를 통해서 스스로가 RC와 LC중 어느 부분에 더 취약하고 어느 부분에 강한지를 점검할 수 있었고, 목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습득할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매 시간마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거나 생소한 영어 단어를 표시해놓고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우거나 시험을 보는 등의 방법은 나에게 향상된 어휘력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듯 한 학기동안 토익 스터디 모임을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원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참여해 열심히 공부한 덕분인 것 같다. 조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다음 학기에도 토익 스터디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할 것이고, 이번 학기보다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 점수를 얻기를 희망한다.

2. 종합의견 (아직 토익시험을 본 사람이 없어 팀장의 소감으로 대체함)

- 정예진: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와 간호학과 졸업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요건들을 들었다. 원하는 대학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900점의 높은 토익점수가 필요했다.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때 배워온 영어와는 다른 더 실용적인 영어를 접해본 적이 처음이었다. 또한 토익스터디 대부분의 친구들이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유형과 시험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4년 동안 계속 토익을 해야 했지만 1학년 1학기에는 부담 없이 토익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토익 스터디를 시작했다.

초반에 토익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팀장으로서 어떻게 진행해야 효율적이고 더 많이, 잘 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에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팀원들이 “일단 해보자!”, “부딪혀 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어서 끝나는 7회 차까지의 모임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일단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간식거리 없이도 2시간의 토익스터디 시간동안 열심히 임하는 팀원에게 고마웠고 스터디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익스터디와 동시에 이예나 교수님의 ‘간호학과 특별반 토익’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 이 강의가 신의 한 수였다. 토익에 대해 무지했던 5명이 점점 토익 문제 유형에 익숙해 졌고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다. 서로 수업시간에 생긴 노하우를 거리낌 없이 공개하며 같이 연습도 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토익강의만으로도 과제가 많아 토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스터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는 최소한으로 진행했으며 “스터디 시간에 다 하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쉬는 시간 없이 2시간동안 쏟아 부은 적도 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강의실을 예약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 몇 시간 전부터 열쇠를 받아놓거나 예약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돌아가면서 열쇠를 받아놓기로 했지만 각자 시간이 맞지 않아 스터디를 진행할 강의실이 없어 결국 포기하고 파한 적도 2~3번 있었다. 그 외에 현암기념관에 있는 분담 토의실은 방음이 되지 않아 Listening을 할 때 소음 때문에 웅기증기 모여 앉아 3번씩 들었던 적도 있었다.

이런저런 불편사항을 뒤로 하고 토익스터디를 진행하는 1학기동안 Nursing Booster 팀은 “아 이제 토익 800점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이런 게 토익이구나. 4학년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의 토익 점수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느 파트를 좀 연습해야겠어.”라는 기준과 목표가 생겼다. 이것이 우리 팀의 결성 이유였기 때문에 스터디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이번 스터디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터디를 결성한 3월에는 서로 잘 모르던 5명이 1학기가 지난 지금 학과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 되었다. 나이를 불문하고 서로 비밀도 털어놓는 소중한 동생들을 만나 감사하다. 이 결과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토익스터디는 끝나지만 여름방학에도 남은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풀어오도록 같이 계획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2학기에는 더 발전된 Nursing Booster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로이스 비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교외
- 학습기간: 2018년 3월 5일 ~ 6월 22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3	16:00-18:00	교외	LC 문제 풀이 & LC 단어 빈출단어 정리
05.21	11:00-13:00	교외	LC 문제 풀이 & 틀린 문제 보완하기(단어정리 등)
06.03	11:00-13:00	교외	LC 문제 풀이 & 틀린 문제 보완하기(단어정리 등)
06.04	11:00-13:00	교외	LC 문제 풀이 & 틀린 문제 보완하기(단어정리 등)
06.09	16:00-18:00	교외	RC 문제 풀이 & RC 단어 빈출단어 정리
06.12	16:00-18:00	교외	최종 TEST 문제 풀이

활동소감

- 이은주: 이번 스터디를 통해 토익 성적이 오르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졸업조건인 토익 700점을 넘기게 되어 좋았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단어가 가장 약했는데, 지속적인 단어시험과 빈출단어 정리를 통해 LC와 RC의 점수가 크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RC의 점수가 크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스터디를 진행하였지만 이번의 스터디 진행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고, 친구와의 친목도 또한 잘 이루어져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터디가 활성화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더 발전하고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다슬: 스터디를 하면서 아직 시험은 하지 못했지만 시험을 보기 위한 용기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익이라는 시험이 다들 잘 봐야하는 시험이고, 영어가 자신이 없다면 항상 망설여지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크게 얻어가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장 졸업조건으로 토익 700점을 맞아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스터디로 인해 자신감을 얻은 것과, 스터디를 하면서 얻었던 지식을 더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터디 보고서로 제출한건 거의 LC지만 친구와 함께 단어를 꾸준히 RC까지 공부를 했고, 이로 인해 LC, RC 둘 다 모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사정이 겹쳐서 아직 시험은 치루지 못했지만 9월 말에 보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 확신하며, 소규모로 진행하는 이러한 스터디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의 성적이 증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셔틀팀 비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미래관 강의실 등
- 학습기간: 2018년 3월 29일 ~ 5월 25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9	12:30 ~ 13:30	미래관 강의실	Day 1. 시작이 반이다!
04.05	12:30 ~ 13:30	미래관 강의실	Day 2. PART 5 정복!
04.12	12:30 ~ 13:30	미래관 강의실	Day 3. 은근히 오답률이 높은 PART 6! 무작정 덤비기!
05.05	2:00 ~ 6:00	야탑 스타벅스	Day 4. 진짜 오랜만에 토익이니까 총 복습
05.17	12:30 ~ 13:30	미래관 강의실	Day 5. 어느새 Part 7!
05.25	2:00 ~ 7:00	서현 두드림	Day 6. 마지막 모의고사 대비

활동소감

- **하유란:** 우리 분당셔틀팀 솔직히 처음에 기대도 안했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라 만나면 놀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 누굴 가르칠 입장이 안되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4학년이고 졸업을 앞둔 시기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최저 750점 최고 845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팀장을 맡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결과를 보고나니 부듯하고 팀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 **김주희:** 이 스터디로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8년 1월 점수가 700점 초반이었습니다. 점수에 실망해서 손을 놓았는데 그때 팀원들이 스터디 제안을 했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 팀 내 최고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 **황지혜:** 과제와 쪽지시험에 치여서 팀원들이랑 같은 날 시험을 보지 못한 게 제일 아쉽습니다. 같이 시험을 봤더라면 제 성적도 분명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학년이니만큼 바빠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팀원 중 제일 언니이고 토익응시를 제일 많이 해서 튜터가 아닌 날에도 팀원들을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제 도움이 팀원들 점수에 반영된 것 같아서 정말 부듯합니다. 분당셔틀팀 파이팅!!



원어민 비교과 스테디

- 학습과목: 스피킹
- 학습장소: 여자 상록학사 등
- 학습기간: 2018년 3월 27일 ~ 5월 18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23	2시간	여자 상록학사	EBS OPIc IM1 강의 청취 후 스피킹 연습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이웃)
03.24	2시간	여자 상록학사	EBS OPIc IM1 강의 청취 후 스피킹 연습 (내가 살고 있는 방과 가구 묘사)
03.27	1시간	분임토의실	스피킹 연습 : 집의 변화
03.29	2시간	면학관 Kyle 교수님 사무실	스피킹 연습 : 일상 대화
04.06	1시간	분임토의실	Breaking Bad 시청 및 표현 정리
04.07	1시간	분임토의실	Breaking Bad 시청 및 표현 정리
04.08	3시간	교외	아시아나 드림윙즈 활동 구상
05.03	1시간	면학관 Kyle 교수님 사무실	최근 뉴스거리(남북정상회담)과 쇼핑할 때 질문하는 연습
05.18	3시간	분임토의실	Breaking Bad 시청 및 표현 정리

활동소감

처음에는 EBS OPIc 강의를 함께 들은 후 스피킹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스테디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의에 나오는 표현들은 저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어휘로 이루어져 있었고, 서로의 피드백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같은 방식으로는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카일 교수님께 스피킹 공부 방식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talking하는 시간을 가지면 영어-한국어 프로세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매주 1시간씩의 시간을 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어휘는 미드(미국드라마)나 토크쇼를 통해 접하면 좋을 것이라 조언해주셔서 저희는 일주일에 하루는 free talking을, 다른 하루는 미드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free talking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미래와 남북정상회담 등 의미있는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고,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하니 어휘나 표현을 좀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미드를 통해 슬랭 같은 표현도 많이 접하였지만, 보통의 아메리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중점적으로 접할 수 있어 활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Kyle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Hershey 비교과 스터디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차바이오 콤플렉스 등
- 학습기간: 2018년 4월 13일 ~ 6월 8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13	15:00~17:00	학동 스타벅스	R/C Part 5&6 품사와 문장구조,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론 공부와 실전문제 풀이, 빈출 표현 및 토익스킬 등.
04.27	19:00~21:00	분당생활관	L/C Part 2 Who/When/Where/What/Which/Why,How 의 문문 듣기 예제 풀이와 의문문에 따른 답안 종류 등 공부
05.16	18:30~20:30	차바이오 콤플렉스	분사와 분사구문 바로알기, to 부정사와 동명사 알기 공부를 해도 어려운 분사구문에 대해 직접 영작 연습
05.24	18:30~20:30	차바이오 콤플렉스	부사절 접속사 종류 알기, 듣기 Part3 문제풀이 부사절 접속사와 다른 종류의 접속사 비교 및 문장구조 분석
05.28	16:00~18:0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캠퍼스	L/C Part3 식당/공항/행사장 등 2자/3자 대화 '채도잉'이라 불리는 각자 성우를 맡아 따라 말해보는 방법 시도
06.08	18:00~20:0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캠퍼스	R/C Part7 복수지문 문제 및 Part별 공략 복습 부족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복수지문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공부

활동소감

함께 판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던 학생들끼리 모여 스터디를 결성하였다. 비교과 영어 스터디 경험이 있는 두 학생과 외부 학원 스터디 경험이 있는 학생 한명으로 구성이 되어 공부 계획을 짜거나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소 원활했다. 사실 처음에는 고득점을 노리고 교재나 공부내용을 정하려 했는데, 각자의 스케줄이 달라 스터디 요일이나 횟수를 정할 때 원활하지 못했고, 따라서 가볍게 하되 기초를 확실히 다지자는 의미에서 'ETS 토익 단기 공략 750+' 책을 선정하였다. 또한 보충 자료로 빈출단어나 표현, 듣기 파일 및 다양한 토익 파트별 맞춤 공부법을 알아왔다.

토익 시험의 구성에 맞게 R/C와 L/C 파트별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R/C의 경우 문법 예시들에 대한 분석과 예제 문제풀이를 함께 해보고 각자 실전 예제들을 풀어보며 공부하였다. 기초수준이었기 때문에 문제집에서는 많이 틀리지 않았었고, 주로 actual test에서 틀린 문제들을 공유하며 공부하였다. 반면 L/C의 경우 문제풀이보다는 발음이나 빈출표현들을 듣고 익숙해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 영국발음 파일 또한 스터디를 마무리할 때 듣기도 했고, PART3의 경우 각자

성우를 맡아 직접 스피킹을 해보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다.

모든 UNIT들을 다 함께 공부하기엔 한계가 있었기에 스터디 후반에는 Actual test를 통해 실전감각을 익혔다. 사실 950점을 상회하는 점수까지 올리지 못했지만 예제 및 실전연습을 한 경험만으로 모의고사에서는 각자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명 모두 800점 초중반까지 성적이 상승하였고 특히 PART 6,7 등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스터디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사실 스터디 진행방법이나 공부법보다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시험공부를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일단 책상에 앉는 것인데, 학교에서 마련해준 기회 덕분에 (반강제적으로라도) 서로가 만나 두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이 성적 향상의 비결이라 생각된다. 물론 당일 분위기나 컨디션에 따라 집중도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그날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스터디가 끝난 뒤 친목을 다지며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



전공 튜터링

62스터디 전공 튜터링

- 학습과목: 유기화학
- 학습장소: 해룡학사 2층 휴게실, 미래관 105호 등
- 학습기간: 2018년 5월 20일 ~ 6월 20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5.02	16:30-18:30	해룡학사 2층 휴게실	제19장 알데하이드와 케톤 제20장 카복실산과 나이트릴
05.14	16:30-18:30	해룡학사 2층 휴게실	제21장 카복실산 유도체: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 제22장 카보닐 알파-치환 반응
05.21	16:30-18:30	미래관 105호	제23장 카보닐 축합 반응 제24장 아민과 헤테로고리 화합물
05.25	16:30-18:30	과학관 105호	제25장 생체분자 : 탄수화물 제26장 생체분자 :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및 단백질
06.04	16:30-18:30	과학관 105호	제27장 생체분자 : 지질 제28장 생체분자 : 핵산
06.11	16:30-18:30	과학관 105호	제29장 대사 경로의 유기화학 제30장 오비탈과 유기 화학: 페리고리 협동 반응

활동소감

- 김나현: 핵산인 DNA와 RNA의 구조를 외우기가 예전부터 매우 까다로웠는데 이번에 배우면서 쉽고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튜터께서 알려준 노래암기법을 활용하여 다른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을듯 하다. 유기화학 특성상 직접 매커니즘을 그려보고 연습을 해야 배운 내용을 잊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번 노트에 그려보고 틀린부분을 확인해보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지 잘 알 수 있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 김태환: 수업 중에 나간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복습을 필수적으로 해야 했는데, 혼자 하기보다 스터디 원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유기화학 반응을 학습했기 때문에 금방 지치지 않고 학습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었다. 또한 튜터가 가르쳐준 암기 팁을 통하여 복잡한 생체 분자들의 종류와 구조를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었다. 매커니즘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을 위주로 (탄수화물 간 결합) 공부하는 것이 좋았다.
- 이상민: 무작정 문제를 풀기 보다는 수업시간에 함께 풀었던 연습문제를 다시 한 번 복습하면서 요령을 키워나갔다. 튜터와 함께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이 도움이 됨을 깨달았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Michael 반응을 배웠을 때 기본원리 중심으로 배웠었지만, 구체적인 예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스터디를 진행하며 표23.1을 통하여 주개와 받개의 공통적인 성질과 예시들을 공부함으로써 예시 반응들이 주어졌을 때 반응을 예측하기 쉬웠다.

- 정다은: Claisen 축합 반응은 PEET 범위에서는 단순히 반응물과 결과물을 외우기만 했었다. 수업 시간에도 이 내용을 간단히 넘어갔지만 스터디에서 알돌 축합 반응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수득률을 높게 얻는 방법 등을 토론하며 반응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 카보닐반응의 어려운 점이라면 친핵성 반응이 일어날 때 어느 위치가 친전자성 또는 친핵성이 강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스터디 원끼리 교수님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알려주신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 정유정: 이번에 학습했던 반응중 대부분이 가역반응인데 처음엔 정방향 반응이 역반응보다 쉬워서 정반응을 익히는데 집중했는데 스터디 원들이 역방향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려줘서 가역반응에 대해 어떤 방향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화학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생체 분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튜터의 조언대로 그 당시 배웠던 기본지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심화적인 합성 부분을 살펴보는 방식이 도움이 되었다.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단발트리오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 팀원: 고지윤(보건복지행정학과 15), 김채연(보건복지행정학과 15), 서지은(바이오공학과 15)
- 시청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독전, 쥘라기 월드 : 풀른 킹덤
-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07	13:20~15:50, 15:50~17:20	홍대 CGV	<p>레디 플레이어 원 (Ready Player One, 2018)</p> <p>이 날은 스티브 스피버그 감독의 레디플레이어를 보고 밥을 먹으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모였다. 먼저 사전에 인터넷으로 시간과 자리를 예약한 후 영화관 현장에서 현장결제로 바꿨다. 영화의 배경은 2024년으로 시작하여 지금과는 다른 다소 암울한 현실이었다. 식량 부족, 일거리 부족 등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 삶을 보내는 것 보다 괴짜 천재 과학자 제임스 할리데이가 창시한 가상현실 세계인 오아시스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다. 영화의 주인공인 웨이드 와츠 역시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보다 더 현실적인 삶으로 생각한다.</p> <p>가상세계 오아시스에는 제임스 할리데이가 죽기 전 3가지 미션을 만들어 놓고 미션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막대한 유산과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 또 오아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니 등을 사용한다. 제임스 와츠 역시 그 미션을 풀려고 하지만 번번히 실패한다.</p> <p>첫번째 미션 수행 중 웨이드 와츠는 사만다 에벌린을 만나게 되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여기서 웨이드 와츠는 사만다 에벌린에게 자신의 현실 세계의 이름을 알려주게 된다. 웨이드 와츠는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제임스 할리데이의 생애를 녹화해둔 박물관에 가게 되고 거기서 힌트를 찾고 첫번째 미션을 해결했다.</p> <p>첫번째 미션 수행자가 되고 그의 이름이 전광판에 달리게 되자 오아시스의 경쟁회사의 사장 놀란 소멘토가 웨이드 와츠를 얕잡아보고 했다. 그 과정에서 놀란 소멘토가 현실세계의 웨이드 와츠를 찾아가 그의 이모를 죽인다. 복수심에 휩싸인 웨이드 와츠는 사만다 에벌린과 그의 친구들은 놀란 소멘토를 무찌르기 위해 다 같이 미션을 수행한다.</p> <p>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웨이드 와츠와 그 친구들은 제임스 할리데이가 돈과 명예를 위해 오아시스 때문에 게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과 게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웨이드 와츠는 가장 먼저 모든 미션을 완수하게 되고 제임스 할리데이의 어린시절을 보게 되었다. 거기서 웨이드 와츠는 그토록 동경하던 인물 할리데이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다. 그렇게 웨이드 와츠는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얻게 되었다.</p> <p>또한 웨이드 와츠는 미션을 수행할 때 제임스 할리데이가 실제로 사랑했던 여자를 알게 되었지만 용기가 없던 제임스 할리데이가 고백하지 못 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웨이드 와츠는 자신도 사만다 에벌린을 좋아하지만 현실세</p>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p>계에서 멋지지 못하고 용기가 없는 자신을 제임스 할리데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p> <p>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웨이드 와츠 중심으로 흘러 갔지만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웨이드 와츠와 제임스 할리데이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p> <p>소극적인 성격으로 사랑하는 여자한테 말도 못하는 할리데이와 사만다 에벌린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 웨이드 와츠와 제임스 할리데이가 게임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임스 할리데이 = 웨이드 와츠' 라는 느낌을 주었다.</p> <p>또한 우리는 영화를 2D로 보았지만 영화 자체가 3D,4D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p> <p>영상미 자체가 화려하고 영화 주인공들의 액션들이 강하고 많이 나타나서 4D로 봤다면 더 실감나고 현실적인 느낌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p> <p>공상적이거나 미래적인 영화를 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보지 않았는데 '레디 플레이어 원'은 기존의 미래 과학적인 영화들을 감동, 유머, 사랑 이야기로 잘 풀어서 재밌게 보았다.</p> <p>후에 식사를 하며 레디 플레이어 원에 대한 후기와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쳤다.</p>
			<div data-bbox="927 989 1268 1476"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951 1487 1243 1517">fig 1. 레디 플레이어 원 포스터</p>
			<div data-bbox="927 1558 1268 2011"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951 2022 1243 2052">fig 2. 영화 관람 전 흥대 CGV</p>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p data-bbox="922 753 1273 782">fig 3. 영화 관람 후 식사 및 토론시간</p>
05.26	13:50~16:03, 16:03~17:50	CGV 신촌아트레온	<p data-bbox="813 805 1024 835">독전 (Believer, 2018)</p> <p data-bbox="813 842 1385 943">이 날은 이해영 감독의 독전을 보고 밥을 먹으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모였다. 먼저 사전에 인터넷으로 시간과 자리를 예약한 후 영화관 현장에서 현장결제로 바꿨다.</p> <p data-bbox="813 950 1385 2029">영화는 오랫동안 마약 조직을 추적해온 형사인 원호(조진웅)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초반 미성년자인 수정(금새록)이 마약 범죄에 휘말려 원호(조진웅)에게 단서를 남기고 죽는다. 그 후 계속되는 수사 끝에 마약 조직의 내부다툼으로 인한 폭발로 죽었어야 할 조직의 후견인 오연옥(김성령)이 살아서 경찰서로 자수해오면서 수사 협조를 한다. 하지만 죽을 수 없을 것 같던 경찰서 내무반에서 오연옥(김성령)은 해장국을 먹다 죽어버리고 폭발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버림받은 조직원 락(류준열)이 나타난다. 폭발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때문인지 처음에는 아무말도 안하던 락, 폭발속에서 강아지가 살았다는 것을 듣고는 수사에 협조한다. 그의 도움으로 아시아 마약 시장의 거물인 진하림(김주혁)과 만나게 되고 원호(조진웅)는 스파이로써 진하림(김주혁)과 조직원 박선창(박해준)의 역할을 하며 서로를 만나게 된다. 조직원 박선창(박해준)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로 독한 마약(라이카)을 코로 마시게되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남는다. 하지만 결국 진하림(김주혁)에게 경찰임을 들키 죽음을 당할 뻔하지만 뛰어난 전투 실력과 위기의 순간에서 락(류준열)이 진하림(김주혁)의 머리를 권총으로 쏘버려 살아남는다. 그 후 다시 진하림(김주혁)으로 위장해 조직의 숨겨진 인물 브라이언(차승원)을 만났지만 버림받은 조직원 락(류준열)은 조직원 박선창(박해준)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빠지고 원호(조진웅)와 동료 소연(강승현)은 브라이언(차승원)의 함정의 빠져 난투극을 벌이지만 극 중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이자 마약 조직을 지휘하는 베일에 쌓인 이선생의 도움으로 둘은 살아남는다. 브라이언(차승원)은 폭발사고로 조직의 간부들을 죽인 장본인이었으며 락의 반려견인 진돗개(가명)를 화상입게 만들었다. 이선생은 브라이언(차승원)의 등판에 동료인 농아남매의 손을 빌려 진돗개(가명)의 화상과 같은 흉터를 만들었으며 자신이 이선생이라고 떠벌리던 브라이언(차승원)을 경찰에 넘겼다. 알고 보니 이선생의 정체는 락(류준열)이었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 그는 진돗개(가명)를 찾아 농아남매와 숨어버렸고 자신들과 함께 이선생을 잡기위해 움직였던 락(류준열)이 이선생이었다는 것을 알게된 마약수사팀은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하</p>

2018-1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p>지만 원호(조진웅)은 진돗개(가명)의 본명이 라이카였다는 것을 알게되고 개의 몸속에 GPS를 심어 놓았다. 후에 원호(조진웅)은 라이카의 몸속에 GPS를 따라 이선생인 락(류준열)일행을 찾게 되고 둘은 다시 만나게된다. 깊은 산속 하얀 눈발이 휘날리는 오두막 집에서 둘은 권총을 탁자위에 올려둔채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화면이 바뀌며 귀가 들리지 않는 농아남매가 마약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단 한발의 총소리가 나고 영화는 끝이난다. '끝까지 의심하라! 독한 자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독전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마지막 결말에 엄청난 반전을 가지고 있다. 난 이 영화를 보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마약 수사팀과 가장 오래 함께했으며 제일 우두머리라고는 생각 할 수 없는 일개 조직원인 락(류준열) 그의 정체가 마약시장을 휘두르는 이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난 이 영화를 보고 락(류준열)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지 못했으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물 같았다. 언제나 자신의 필요성을 찾고 자신(이선생)을 사칭하는 인물들을 뒤에서 처리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불우한 어린 시절, 남의 이름(락)으로 살아야 했던 락(류준열) 영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누구인지 되묻는다.</p> <p>적이고, 사회의 악의 존재이며, 범법자인 락(류준열)을 단순히 미워하기란 쉽지 않았다. 어린 시절 자신의 눈앞에서 부모님이 마약에 빠져 죽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어둠의 세계에서 굴러진 락(류준열)이는 애정결핍과 정체성혼동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으며 자신의 가치, 필요성을 다른이에게 찾았던 것은 아닌가 싶다.</p> <p>영화의 마지막은 화면이 바뀌며 단발의 총소리로 막을 내린다. 쿠키 영상도 없다. 난 열린결말은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결말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 의견들 중 하나는 총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원호(조진웅)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영화 포스터의 6명의 인물중 유일하게 원호(조진웅)의 얼굴만이 색감이 있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원호(조진웅)의 마지막 대사는 '넌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냐?' 였다. 이를 들은 락(류준열)은 자신의 행복을 찾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한다.</p> <p>다른 관점으로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능 영화이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마약을 코로 직접적으로 흡입하는 장면 눈알을 씹어먹는 장면 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장면, 여성의 중요 부위가 나오는 장면 등 15세에게 적절하지 않은 장면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과였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이는 네이버 영화 후기에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영화 관계자들은 좀더 많은 관람층을 확보하여 흥행하고 싶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p> <p>하지만 간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명작이라고 할 만큼 모든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적이자, 주인공이며, 아군이었던 락(류준열)이라는 인물 등. 누군가가 이 영화를 봐야할지 고민이라면 꼭 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다.</p> <p>후에 식사를 하며 독전에 대한 후기와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쳤다.</p>

...

...

...

...

...

...

...

...

...

...

...

...

...

...

...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p data-bbox="1008 881 1187 909">fig 4. 독전 포스터</p>  <p data-bbox="915 1448 1279 1476">fig 5. 영화 관람 전 CGV 신촌아트레온</p>  <p data-bbox="959 2022 1235 2050">fig 6. 영화 관람 후 토론시간</p>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6.10	11:35~13:52, 13:52~15:35	메가박스 신촌	<p>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p> <p>이 날은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의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을 보고 밥을 먹으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모였다. 먼저 사전에 인터넷으로 시간과 자리를 예약한 후 영화관 현장에서 현장 결제로 바꿨다.</p> <p>공룡들만이 존재하는 화산섬 '이슬라 누블라'가 아닌 인간들의 세상으로 공룡들이 출몰했다.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세상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공룡들을 둘러싼 사건과 전세계를 위협할 최대 위기의 시작을 다룬다.</p> <p><쥬라기 월드>에서 지상 최대의 공룡 테마파크 '쥬라기 월드'가 화려하게 개장하지만,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최강의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 탈출 사건으로 인해 폐쇄되고, 이슬라 누블라 섬은 다시 공룡들만의 세상으로 바뀐 상태이다.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서는 화산 폭발로 인해 섬에 남아 있던 공룡들이 멸종 당할 위기에 처하자, '쥬라기 월드' 사건 한가운데 있었던 클레어(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가 공룡들을 구하기 위해 공룡 보호 활동을 하고 의회는 공룡의 보호정책에 대한 입법을 거절한다. 클레어(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는 벤자민 록우드(제임스 크롬웰)의 공룡의 11종을 몰래 이주시키자는 제안에 오웬(크리스 프랫)을 끌어들이고, 공룡들을 구조하기 나서면서 시작된다.</p> <p>멸종 위기 공룡들과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선 구조팀의 여정에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들이 가득하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스펙터클을 선사할 순간은 화산 폭발 시퀀스다. 폭발 조짐을 보이던 화산이 마침내 용암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생존을 위해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공룡 무리의 모습은 숨 막힐 듯한 압도감을 선사한다. 하지만 화산섬을 벗어나 록우드 저택에서 펼쳐질 공룡들의 여정도 만만치 않다. 가까스로 탈출한 공룡들을 감금하고, 이용하려는 인간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존재해선 안 될 생명체 '인도미누스 랩터'의 위협까지 더해진다. 인도미누스 랩터는 '쥬라기 월드'를 단순히 쏙대밭으로 만들었던 포악한 인도미누스 렉스의 유전자에 높은 지능을 지닌 공룡 벨로시랩터의 유전자를 혼합해 탄생시킨 공룡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명체 중 가장 치명적인 힘을 지녔으며 교활할 만큼 뛰어난 지능을 자랑한다. 움직임은 도마뱀처럼 날렵하고, 총알에도 끄떡없는 방탄 능력까지 지녔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의 기술력으로 창조된 인도미누스 랩터는 그만큼 일그러진 존재이기도 하다. 종잡을 수 없는 인도미누스 랩터의 성미 때문에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 더욱 아찔하고 위험천만하다.</p> <p>뿐만 아니라 '쥬라기 공원'의 공동 설립자 벤자민 록우드의 손녀이자 메이지 역을 맡은 이사벨라 서먼이 합류해 아이의 시각으로도 다른 공감과 모험심을 자극한다. 메이지는 누구보다도 먼저 '인도미누스 랩터'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른들의 비밀을 쫓기 시작한다. <쥬라기 월드>는 클레어의 조카 '그레이'와 '자크'를 통해 테마파크를 찾은 소년의 시선으로 공룡의 세계를 모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메이지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속 음모를 파헤치는 핵심 멤버로서 관객들을 상상 이상의 세계로 이끈다. 록우드 저택에서 펼쳐질 치열한 추격과 전투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극과 스릴을 자아낸다.</p> <p>영화는 시리즈답게 전편과 상당부분 이어졌다. 쥬라기 공원이 왜 문을 닫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쥬라기 공원 시리즈 중에 이 영화를 먼저 봤다면 그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p>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p>다. 주라기 공원의 화산폭발 위기로 인해 공룡들의 제 2의 멸종위기가 전제되어있고 그 공룡들을 이주시킨다는 설정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주라기 공원 영화의 특성 상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돈을 무조건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등장한다. 밀수꾼은 결국 본인의 욕심과 자만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p> <p>주라기 월드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은 전 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흐름이다. 돈을 매우 좋아하고, 정말 누가 봐도 나쁜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결국 많은 손해가 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공룡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캐릭터들은 많은 우여곡절도 있지만 운이 좋게 다들 살고 공룡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룡이 구해주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된다. 이런 장면들은 전 작과 다르지 않아 조금 진부하게 느껴졌다.</p> <p>하지만 영화 속에서 공룡들의 감정에 대한 섬세한 표현이나 공룡을 CG로 표현하는 데에서의 생동감과 표현력은 웅장함을 주고 마치 공룡이 살아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감을 부여한다. 또한 이번 영화에서는 주연 같은 조연인 어린 아이가 등장하는 데, 아이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며 이 영화에 주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캐릭터이다.</p> <p>최근 이슈화 된 사건이 이 영화가 해외에서 개봉되었을 때는 15세였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12세로 연령을 낮추었고 그로 인해 영화의 몇 가지 장면을 잘랐다는 것이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자르면서 영화 스토리상의 흐름에 대한 개연성이 떨어지고 일부 중요한 장면 또한 잘리면서 한국 영화사에 대한 비판이 많다. 내가 영화를 봤을 때도 스토리 상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마구잡이로 잘라서 그렇게 된 것 같다.</p> <p>영화의 진행 방법, 그리고 연령을 낮추면서 마구잡이로 자른 한국 영화사의 실수 때문인지 몰라도 영화가 썩 부드럽게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라기 월드의 특유의 생동감과 웅장함, 그리고 공룡들을 표현하는 섬세함이 이 영화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에 식사를 하며 주라기 월드에 대한 후기와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쳤다.</p>



fig 7. 주라기 월드 포스터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fig 8. 영화 관람 전 메가박스 신촌

활동소감

2015년도 입학하여 처음 만났던 저희 셋은 어느덧 4학년 1학기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때는 항상 붙어 다니던 사이였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SNS로 안부를 물으며 바쁜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습지원센터의 학습법 소모임 및 영글클럽을 통해 저희 셋은 함께할 수 있었으며 같이 영화도 보고 식사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마지막 학년을 보내며 진로와 진학 걱정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3번의 만남은 저희에게 있어 짧지만 매우 소중한 학창 시절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영화 선정에 있어서는 각자의 영화 취향과 성향을 알게 되었고, 영화를 보고 난 후 식사를 하면서는 그날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 학업과 알바 등 서로 다른 시간에 있어서 3번의 만남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였으며 앞으로도 진학과 취업 준비에 있어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정기적으로 영화 관람과 답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번 학습스터디 및 영글클럽을 통해 활동지원비를 지원 받아 비싼 영화 값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영화관 들이 인터넷 예매 등 카드결제를 통해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결제를 해야 하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인을 받지 못한 점 이었습니다.

만일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학습스터디 및 영글클럽에 참여하여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으며 다른 학우들이나 선배님과 후배님들에게도 강력 추천하고 싶은 교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영수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 팀원: 진혜영(의생명과학과 16), 정지원(의생명과학과 16), 박운이(의생명과학과 14)
- 시청 영화: 7년의 밤, 어벤져스 : 인피티니 워, 신과 함께
-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3.30	16:00-18:00	CGV 피카디리 1958	영화 '7년의 밤'을 함께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토의를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짐
05.18	21:50-00:20	CGV 의정부	저녁을 함께 먹고 의정부 CGV에서 '어벤져스 : 인피니트 워'를 감상함
06.09	14:30-17:30	정지원 학우의 집	정지원 학우 집에서 '신과 함께 : 죄와 벌'을 감상하고 서로 소감을 공유함

활동소감

- 진혜영: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꼭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학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의정부처럼 가깝더라도 나가 기 힘들어했는데 영글 클럽에 참가하게 된 후 영화를 보러 나간다는 귀찮음이 사라지고 놀러나간다는 생각으로 매우 즐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기 위한 만남에 영화를 보고난 후 소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함께하면서 저의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추억도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친구들과 함께 영글클럽에 참가하게 된다면 더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 정지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학기에 꼭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원하는 영화나 작품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학교 행사와 달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진행되는 방식이었기에 더욱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 박운이: 처음 같이 참여했던 진혜영 학생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원들과 학교수업에 지쳐 있던 와중 한번씩 환기시켜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평소에 보고싶어도 멀다는 이유로 보러가는 일이 적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보고싶었던 영화도 보고 좀더 한학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다시한번 보고서를 씀으로써 그 영화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그 영화를 만든 의미를 조금더 이해 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학교생활에서 조원들과 더 좋은 추억을 쌓을수 있어서 좋았고, 각자 원하는 영화취향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영화를 접하는 것 또한 즐거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친구들과 즐겁게 여러 가지를 공유할수 있고 학교생활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영글클럽을 다음학기에도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류비윤비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 팀원: 류혜연(의생명과학과 15), 윤지현(보건복지행정학과 15)
- 시청 영화: 신과 함께, 레슬러,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5.02	12:00~15:00	해솔마당	함께 학식을 먹고 해솔마당 잔디에서 노트북으로 '신과 함께' 감상
05.09	18:00~22:00	CGV 건대입구	저녁을 함께 먹고 카페에 갔다가 영화관에서 '레슬러' 감상
05.16	17:00~20:00	카페	카페에서 만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감상

활동소감



5월 2일
신과 함께



5월 9일
레슬러



5월 16일
지금 만나러 갑니다

- 류혜연: 4학년이라 시간이 될까 하면서도,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는 계속 해왔던 류비윤비팀의 이름으로 영글클럽에 다시 한 번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다 즐기려고 하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벌써 3학기나 참여중인 이 영글클럽도 영화감상이라는 공통적인 취미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기회를 주었다. 또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른 경제적인 제한이 있음에도 이렇게 지원해주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다. 지현이와 영화를 보고 함께 밥을 먹으며 영화를 고르기부터, 영화를 보고난 후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른 것은 당연한 바, 받아들이기엔 따라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과연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보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영글클럽이 유지되고 많은 학생들이 영화감상의 즐거움을 알아간다면 좋겠다.
- 윤지현: 혜연이와 이번 학기에는 영글 클럽으로 '신과 함께', '레슬러',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총 영화 세 편을 감상하였다. 영글 클럽을 알게 된 후부터 지금까지 총 3학기 동안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영화를 보는 문화생활도 의미가 있지만 팀원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도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류혜연의 류와 윤지현의 윤과 함께 무비를 합쳐서 류비윤비라는 팀명을 고민 끝에 정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무엇보다 영글클럽이 아니었다면 평생 가보지 않았을 침대 영화관도 가보게 되어 영글 클럽 활동을 함으로써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다. 다음 학기에도 영글 클럽과 함께 하고 싶지만, 휴학고민이 있기에 이번이 마지막 활동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영글 클럽에 참여하며 혜연이와 영화를 보며, 영화를 보는 것을 제외하고도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정민이와아이들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 팀원: 박정민(의생명과학과 17), 김유정(의생명과학과 17),
 김동길(의생명과학과 17), 김민주(의생명과학과 17)
- 시청 영화: 라이프오브파이, 아이언맨, 1937
-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326	10:00~12:30	해룡학사 휴게실	라이프 오브 파이를 감상하고 서로의 의견과 결말의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의 해석을 공유하며 영화에 여러 가지 결말에 대해 생각하고 동기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04.30	10:00~12:30	미래관 분임 토의실	조원들 모두 액션 영화인 아이언맨을 보고 처음에 생각했던 액션 영화에서 과연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완전히 고쳐졌다 고 했다 1번 봤을때는 몰랐던 영화의 교훈이 2번 3번 보니까 주인공의 참회와 후회에서 느껴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05.18	09:00~11:30	해룡학사 휴게실	1987년도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잘 알지 못하는 년도 였다. 그저 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접하게 되니 굉장히 충격적 이었고 그저 안일하게 생각했던 지금의 생활이 실제 사람들의 노력덕분에 이뤄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다.

활동소감

예전부터 영화는 항상 혼자 보거나 둘 정도 보게 되는 게 일상 이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4명 이상이 모여 같은 영화를 시간을 내서 본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영화의 장르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 영화를 고르는 일도 많이 힘들었고 영화 해석에 따른 동기들의 생각도 무척이나 달랐지만 나오는 다른 생각을 하는 동기들의 의견을 듣고 같은 영화의 해석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자주 모여 같이 영화 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친해졌고 동기들과 영화보며 이야기 하는 즐거움을 또 한번 느껴보고 싶다.

...

...

...

...

...

...

...

...

...

...

...

...

...

...

...

리딩 리더스

책속에 헤이즐넛 리딩 리더스



- **팀원:** 최성원(보건복지행정학과 13), 진승빈(보건복지행정학과 13), 박문희(보건복지행정학과 13), 전일남(보건복지행정학과 13), 최주혁(보건복지행정학과 13), 이동진(보건복지행정학과 13)
- **독서명:** 센서티브, 기브앤테이크,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13	12:30-13:30	카페 엔젤	첫 공식모임 및 제 1차 독서선정 (센서티브)
05.14	12:30-13:30	학생회관	두 번째 모임 및 제 2차 독서선정 (기브앤테이크)
06.19	12:30-13:30	카페 엔젤	중간모임 및 제 3차 독서선정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06.22	12:30-13:30	학생회관	마무리 활동 및 종결

활동소감

사실 '리딩 리더스'라는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리 거창하지 않았다. 현재 4학년 1학기를 재학 중인 우리들은 이른바 '취준'이라는 취업 준비에 접어드는 단계에 있었고, 누구하나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한 체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항시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습법 소모임 중에 독서 관련 소모임이 있다는 것을 동기가 발견하였고, 우리는 재미삼아 해보자는 의견이 단숨에 모아 졌다. 아마도 사회 진출을 앞둔 우리에게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새롭고도 마지막 도전'이라는 놀이가 생겼다고 인식했던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리딩 리더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3권이지만 각자가 읽고자 하는 분야는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이다. 누구는 소설만을 고집하고 누구는 자기 계발서만을 고집하다보니 의견수렴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국 우리들은 고심 끝에 전공학과인 '보건복지행정학과'와 연관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 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서적이 바로 위의 3권이다.

독서를 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바로 동기가 지닌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군복무 기간까지 포함해서 서로 알고지낸 지 6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이제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책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과 거기서 묻어나오는 관념, 인식 등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자신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녀석이었나' 싶을 정도로 기존에 갖고 있던 동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가령, '기브앤테이크'에서는 똑똑한 기부가 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든 또 다른 준거들을 만듦으로써 우리를 이중으로 제약한다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다. 별거 아닌 소주제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그것도 어느 정도 마음이 맞다고 생각한 동기들 간에서 도출된 생각들은 서로를 흥미롭게 판단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재밌는 발견도 좋았으나 진짜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다소 아쉬울 따름이었다.

리딩 리더스 모임을 하면서 시험기간이니, 4학년이어서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하였지만, 졸업을 코 앞에 둔 우리들에게 이번 소모임의 기회는 바쁜 일상 중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만들어 만끽할 수 있었던 '침표'같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서로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이자, 앞으로 있을 많은 여정들을 헤쳐나갈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했다.



투김박 리딩 리더스

- 팀원: 박수민, 김효빈, 김재희
- 독서명: 82년생 김지영씨, 나를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22	18:00~20:00	상록학사 106호	82년생 김지영씨를 읽고 서로의 소감을 공유
05.29	18:00~20:00	상록학사 106호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를 읽고 자존감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눔

활동소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리딩 리더스를 통해서 혼자 읽었으면 끝까지 못 읽었을 책을 정독할 수 있었고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각자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이 새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주제가 특히 페미니즘인 82년생 김지영씨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다들 여자라 동질감을 느꼈고 앞으로의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 여성들이 어떤 현명함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자존감에 있어서는 셋다 낮아서 우리 모두 자존감을 갖자는 측면에서 각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칭찬해주기를 했는데 별거 아닌데 은근히 기분도 좋고 자존감이 살짝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다.

작년에 이어 또 리딩 리더스를 하게 되었는데 항상 할 때마다 얻어가는 게 많아서 좋은 스테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딩 리더스 앞으로도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poah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학습과목: 학술발표대회
- 학습장소: 노원, 오목교
- 학습기간: 2018년 06월 29일 ~ 08월 06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06.29	3시간	노원	* 6월 30일 제안서 제목집수를 위한 국문, 영문 제목 아이디어 회의. * 제안서 접수.
18.07.09	5시간	오목교	* 강의 자료 분석. - 2016_Visitkorea_한국관광키워드트렌드분석보고서. - 2017아웃바운드현황및트렌드조사보고서. * 아이디어 컨셉 회의.
18.07.16	5시간	오목교	* 강의 자료 분석. - KTO_동남아_관광객_유치_확대_전략. - 소셜미디어빅데이터활용여행트렌드분석보고서(최종)_한국관광공사. * 아이디어 컨셉 도출. * 지역 선정 및 선정 이유 확립. * 자료 수집 분업화.
18.07.23	6시간	오목교	* 자료수집 토대로 기초 틀 구성 * PPT 초안 제작 * 아이디어 구체화 회의 진행 * 'Destination SPA' 관련 논문 분석
18.07.30	7시간	오목교	* 대회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PPT 본격적 제작 * Raw Data 가공
18.08.05	6시간	노원	* PPT 제작 * 출작

활동소감

- 김주완/데이터경영 14: 데이터수집, 가공, 분석을 토대로 출작하는 이번 공모전은 일반적인 타 공모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데이터경영학과 라는 전공을 살려서 학술대회에 참가해보자' 가 저희의 목표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발표가 8월10일인지라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기존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만의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결과물을 끌어 냈다는 것이 너무나 부듯했습니다.
- 이현구/데이터경영 14: 이번 3학년 1학기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대학생 제안서 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스테디는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한 자료 수집,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제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대학생 제안서 발표대회 스테디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의 조원들은 6번의 모임을 가졌고 순차적으로 할 일을 정하여 분담했고 서로 상호보완하며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번 스테디를 통하여 1학기 동안 배웠던 데이터 분석방법, 자료수집, 자료 분석 등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었고, 수업에서 알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스테디를 자주 참여하여 제 능력을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윤면진/데이터경영 14:** 이번 방학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도중 이희정 교수님께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한국관광레저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추천해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며 포천을 어떻게 하면 관광지로서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다 보니 그 동안 제가 몰랐던 포천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방학 동안에 조금이나마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 다음 동계 겨울 방학에도 이러한 기회가 또 생긴다면 주저없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종합의견 소모임으로 스터디 진행 후 일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니 계획 수립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스터디도 일일보고서 즉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통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학습과목: 빅데이터 공모전
- 학습장소: 강남역 스테디룸
- 학습기간: 2018년 07월 09일 ~ 7월 29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07.09	13시-19시	강남역 스테디룸	1. 빅데이터 공모전 탐색 2. 관련 주제 설정 3. 주제분석
18.07.16	13시-19시	강남역 스테디룸	1. 제세동기 위치조사 2. 급성심정지로 인한 사망자수 3. 추가적의견
18.07.23	13시-19시	강남역 스테디룸	1. 응급실 위치조사 2. 급성심정지로 인한 사망자수사 3. 자료의 시각화방안 조사
18.07.30	13시-19시	강남역 스테디룸	1. 급성심정지로 인한 사망자수 2. 자료의 시각화방안조사 3. 구글어스 활용방안조사

활동소감

1. 지원없이 우리끼리 공모전을 지원했다면 의지가 꺾이고 실제로 자료수집비용이나 공모전 준비비용에 부담이 되었을 것 같음.
2. 공모전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통계는 어느 분야에나 적용될 수 있으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분석해보면서 여태껏 언론보도자료에서 봐 왔던 통계수치들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다. 반면 필드에서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공도 중요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를 사용능력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3. 공모전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통계라는 것이 일상생활속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또한 그 형태가 우리가 흔히 아는 수치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형 데이터 등의 여러가지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모전 준비를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였다
4. 이번 공모전은 나에게 통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었다. 평소 생각지 못했던 '평균적'이라는 말도 이제는 사소하게 넘기지 않고 "과연 평균의 기준은 어떤 표본으로부터 정해진 것이며 그 모집단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세상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다.

NSNT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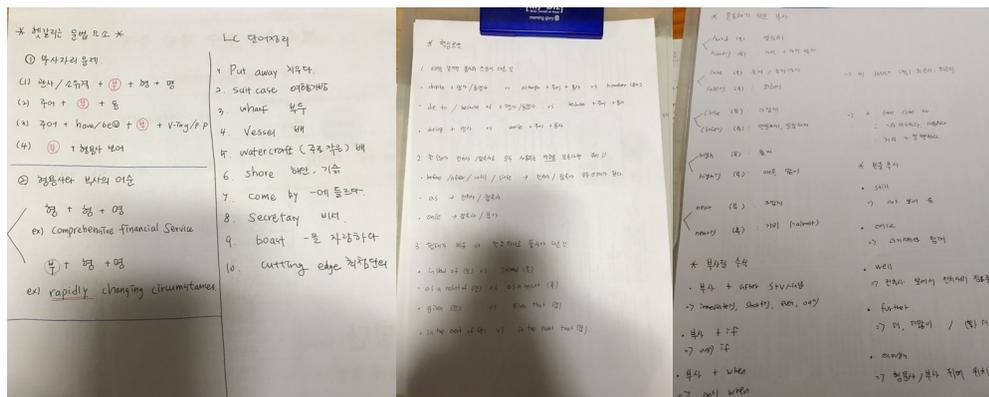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07월 14일 ~ 08월 04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4	15:00 ~ 18:00	카페	기출문제집 풀고 부족한 문법 기본서로 학습하기,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단어 암기하기.
07.21	15:00 ~ 18:00	카페	기출문제집 풀고 부족한 문법 기본서로 학습하기,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단어 암기하기.
07.28	15:00 ~ 18:00	카페	기출문제집 풀고 부족한 문법 기본서로 학습하기,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단어 암기하기. LC진단고사 보기. LC단어 암기
08.04	15:00 ~ 18:00	카페	기출문제집 풀고 부족한 문법 기본서로 학습하기,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단어 암기하기. LC학습

활동소감

항상 토익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 공부를 하다가 포기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시간을 정해서 서로 도우며 공부하다보니 토익에 흥미가 생기고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도 생긴 것 같다. 그리고 LC는 처음 공부해봤는데 앞으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4번의 모임이었지만 각자 집에서 추가적으로 공부도 하여 토익 실력이 조금은 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오늘로써 공식적인 소모임은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같이 공부할 계획이다.

소모임 참여가 토익공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고구마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카페, 야외카페
- 학습기간: 2018년 07월 20일 ~ 07월 30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20	10:00~12:00	카페	문장의 구조(문장의 구성/주어/동사)
07.22	10:00~12:00	야외카페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
07.29	10:00~12:00	카페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2
07.30	10:00~12:00	카페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3

활동소감

혼자서는 공부하는 게 힘들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부할 수 있어서 토익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늪에서 영어배우기 힘들죠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강남 스터디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07월 06일 ~ 07월 27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07.06	13:00~14:30	강남 스터디 카페	RC : 73분 100문제 실전 문제풀이 RC : 형용사 & 부사 유형정리
18.07.13	13:00~14:30	강남 스터디 카페	RC : 73분 100문제 실전 문제풀이 RC : 명사 문법 유형정리
18.07.20	13:00~14:30	강남 스터디 카페	RC : 73분 100문제 실전 문제풀이 RC : 분사 문법 유형정리
18.07.27	13:00~14:30	강남 스터디 카페	RC : 73분 100문제 실전 문제풀이 RC : 관계사 문법 유형정리

활동소감

- 학습목표: 토익 RC 점수 400++
- 달성 양상: 7월 29일 토익 시험 응시
- 진행과정과 양상: 강남해커스 어학원을 다니며 금요일 수업이 끝난 후 모임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스터디
13:00부터 73분간 실전 100문제 풀이
남은 17분간 part 5 유형정리
형용사 부사, 명사, 분사, 관계사 정리를 함
- 소감 및 종합의견: 혼자서 공부 하는 것 보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았으며 학원에서 배운 것을 수업이 끝난 후 바로 모여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 이었고 73분이라는 실제 시험시간과 동일하게 제약을 주면서 문제를 풀음으로써 집중력 훈련과 시관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 기타: 듣기 점수는 다들 잘 나오기 때문에 따로 스터디 하지 않고 Reading 에 집중을 하여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토익에만 제한되지 않는 영어 공부를 했고 이런 학습을 통해 앞으로 영어에 접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버티자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다.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학습과목: 임상심리사 2급 필기
- 학습장소: 노원역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07월 03일 ~ 07월 26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월3일	저녁7시~ 저녁 9시30분	노원역 카페 아메리카노	임상심리사 2급 필기 2015년 기출 풀이 스터디 진행 계획 세부사항 세우기
7월10일	저녁7시~ 저녁 9시30분	노원역 카페 아메리카노	임상심리사 2급 필기 2017년 기출 풀이 임상심리사 2급 실기 part1 기초상담심리상담
7월19일	저녁7시~ 저녁 9시30분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 카페 토프레스	임상심리사2급 필기 2018년 기출 풀이 임상심리사2급 실기 part2 자문 교육 재할
7월26일	저녁7시~ 저녁 9시30분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 카페 토프레스	임상심리사2급 필기 2016년 기출 풀이 임상심리사2급 실기 part3 심리치료공부

활동소감

학기 중에 뜻이 맞는 동기들과 모여 2018년에 8월과 10월에 실시하는 임상심리사2급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을 대비하기 스터디를 계획하였다. 그런데 운이 좋게 기회가 되어서 학습지원센터에서 하계방학 소모임 모집하였고 지원하게 되었다.

구성원들과 스터디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를 결정하는 것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날씨가 가장 힘들었다. 7월 초에는 폭우 7월 중순부터는 폭염으로 인하여 스터디를 준비하고 약속 장소까지 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임상심리사 2급 시험대비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모임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 모임을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고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덕분에 혼자서 시험을 대비할 때보다 학습의 능률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4학년으로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소모임에 더 이상 지원할 기회가 앞으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회나 시간이 된다면 학교의 지원을 받지 못해도 다른 분야의 소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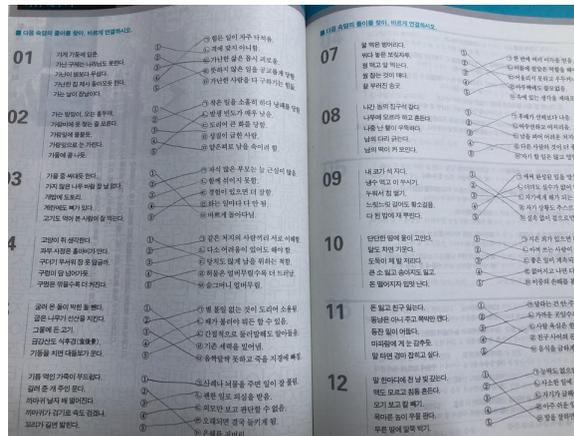
보1의4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학습과목: 자격증
- 학습장소: 건대 스터디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07월 06일 ~ 07월 27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월 6일	18:00~20:00	건대 스터디 카페	37회 기출문제 풀이, 고사성어 외우기
7월 13일	18:00~20:00	건대 스터디 카페	38회 기출문제 풀이, 외국어 표기법
7월 20일	18:00~20:00	건대 스터디 카페	39회 기출문제 풀이, 읽기 파트 4지문
7월 27일	18:00~20:00	건대 스터디 카페	40회 기출문제 풀이, 기출문제 프린트

활동소감

스터디를 하면서 혼자 자격증 준비를 할 때 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장기간 하기에는 스터디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이번 스터디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혼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같이 하면 보이기 때문이다. 서로 숙제 검사를 해준다거나 간단한 쪽지 시험을 보면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약자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학습과목: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 학습장소: 교외 서울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07월 06일 ~ 07월 27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6	1:00~5:00	교외 서울 카페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내용 파악 및 모르는 부분 체크 및 해당 내용 토의
7/13	1:00~4:00	교외 서울 카페	2급 필기 내용 체크 및 기출 시험 경향 파악 및 풀이
7/20	1:00~4:00	교외 서울 카페	2급 실기 독학 후 어려운 부분 체크 및 설명 2급 기출 시험 풀이
7/27	1:00~5:00	교외 서울 카페	2급 실기 기출 풀이

활동소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초등학교때 이후로는 주눅한 경험이 처음이었다. 방학때는 풀어지기가 쉬워서 공부를 안할 것 같아서 스테디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좋은 생각이었다. 덕분에 필기를 합격했고 실기도 같이 공부한 것이 기본기가 되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간단한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라는 자격증이었지만 혼자 공부했다면 의지가 꺾여서 쉽게 포기하고 취득하지 못하였을듯한 자격증을 같이 준비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었다. 그 결과 필기에서 좋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고 남은 실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기 중에는 학과 공부로 바쁘고 방학 중에는 쉰다는 핑계로 무언가를 도전해 보는 게 어려웠는데 스테디를 통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였다면 계획만 세웠다가 포기했을 일이었을 텐데 다른 조원들과 함께 준비하여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스테디 덕분에 방학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필기채점내역		실기채점내역	
합격 컴퓨터활용능력 필기 2급 수험번호: 시험일자:2018.07.29			
구분	1과목	2과목	3과목
점수	75	50	0
총점	125		평균 62.5

필기채점내역		실기채점내역	
합격 컴퓨터활용능력 필기 2급 수험번호: 시험일자:2018.07.21			
구분	1과목	2과목	3과목
점수	70	60	0
총점	130		평균 65

필기채점내역		실기채점내역	
불합격 컴퓨터활용능력 필기 2급 수험번호: 시험일자:2018.07.14			
구분	1과목	2과목	3과목
점수	70	60	0
총점	130		평균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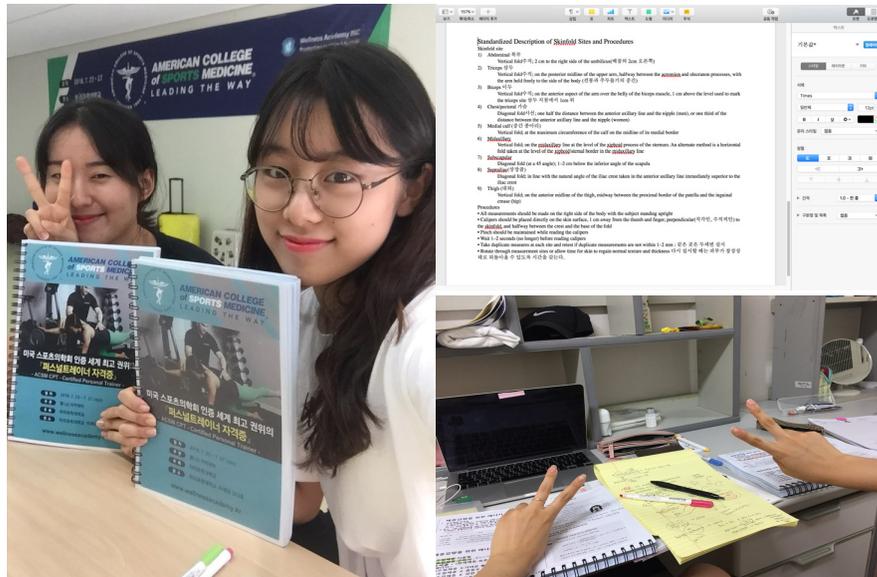
우리가 짬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학습과목: 영양학 등
- 학습장소: 강의실, 기숙사
- 학습기간: 2018년 07월 24일 ~ 07월 27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24	오후 6시~8시	강의실	영양학
7/25	오후 8~10시	기숙사	심폐지구력 트레이닝과 체중관리
7/26	오후 9시30분~ 11시 30분	기숙사	기능해부학 상지
7/27	오후 5시~7시	강의실	모의시험 풀이 및 정리

활동소감

- 심예찬: 수업이 너무 힘들고 양이 많아서 스터디할 때 힘들었지만 간단하게라도 공부한 것을 훑어보니 까 모의시험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서로 필기도 보충할 수 있고 설명하며 되짚어 본 것이 좋았던 것 같다.
- 조혜수: 강의를 듣고 바로 그날 내용을 정리하며 다시 훑어보니 기억에도 더 오래 남는 것 같아 좋았다. 스터디를 통해 아는 내용을 서로에게 가르치듯이 얘기하면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CHA 지니어스♥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학습과목: 일러스트 등
- 학습장소: 엔젤리너스 건대역점
- 학습기간: 2018년 07월 08일 ~ 07월 29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8(일)	17:00~19:00	엔젤리너스 건대역점	일러스트 기본기능 숙지 및 인물 그리기 실습
7/15(일)	17:00~19:00	엔젤리너스 양재역점	포토샵 기본기능 활용하여 자신만의 포스터 만들어보기
7/22(일)	17:00~19:00	엔젤리너스 양재역점	간단한 영상촬영 이후 프리미어 편집
7/29(일)	17:00~19:00	엔젤리너스 건대역점	에프터이펙트를 기본적 기능 활용하여 짧은 모션그래픽 동영상 만들기

활동소감

광고, PR, 언론을 전공하고 있고 디자인 공부를 해본적이 없는, 스터디멤버들은 어도비 툴을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 수업이 재밌어 보여서 들으려고 하면, 영상 전공자들이 화려한 편집 기술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높은 학점을 따지 못할 것에 도전을 겁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대가 비슷해 평소 친분을 유지해오던 우리는 같이 학식을 먹다가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이번 방학을 계기로 발전해서 돌아오자!”라고 말이 나온것이 계기가 되어, 공지톡에 올라온 하계 방학소모임을 보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자칫 무의미하게 지난 학기처럼 집에서 방학을 보낼 수 있을 뻔 했는데, 학습소모임을 신청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하루 학교사람들과 만나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남은 6일 시간이 날 때마다, 준비해갔습니다. 그렇게 한달, 4번을 성실하게 만나고 공부하니깐, 우리도 멋진 디자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남우 학생은 영상전공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황장연 학생은 GTQ 자격증을 따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디지털영상제작이라는 전공수업을 같이 듣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방학을 통해 저희 팀원들은 ‘모든지 하면 안되는건 없다’는 중대한 교훈 하나를 얻어갑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학습지원센터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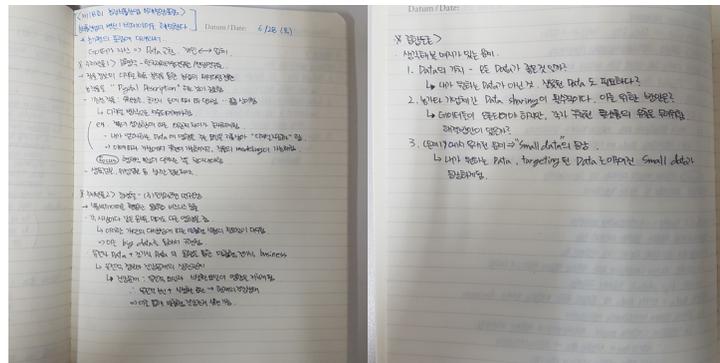
푸드원탑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학습과목: 농식품부주관 대학생 현장실습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 학습장소: 푸드원텍 등
- 학습기간: 2018년 06월 27일 ~ 08월 03일
- 학습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6/28	PM 01:00~06:00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 참가
7/16	AM 09:30~06:30	푸드원텍	농식품부주관. 대학생 현장실습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 - 오프라인 강의 수강
7/17	AM 09:30~06:30	푸드원텍	농식품부주관. 대학생 현장실습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 - 서일농원, 태성김치 견학 실습
8/3	AM 09:30~06:30	푸드원텍	농식품부주관. 대학생 현장실습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 - 미생물 실습

활동소감

- 식품 전공인으로서 앞으로 가져야할 자세와, 식품분야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습지원센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발행일 : 2018년 8월

발행인 : 김역환

발행처 : 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화 : (031) 850-8950

이메일 : chactl@cha.ac.kr

팩스 : (031) 543-2397

홈페이지 : <http://ctl.cha.ac.kr>
